

■ IFAC 연구보고서 2005-03

## 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 허 은 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공동연구자 : 류 문 수 (문화연대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자/축제 연구자)

진 대 현 (인하대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 지 영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

---



## 【 요약 및 제언 】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천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축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학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축제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지역 단위 차원에서의 축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 연구방향

- 31개 인천 지역축제의 ‘조작적’ 정의와 내용적 성격에 따른 축제 범주화에 의한 전수 조사 및 분석
- 지역축제 실태 파악을 통한 대안적 평가 방법론 제시
- 지역축제 지원 정책 수립을 방향 제시

### ■ 주요 조사 내용

- 인천 시/군구 31개 축제에 대한 일반 현황 조사 및 분석, 문제점 도출, 인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과제 제시
- 일반현황(시/군구별 축제 수, 축제범주별 구분, 개최횟수, 개최기간, 개최시기, 예산, 자원구성), 운영 및 평가 현황(조례제정, 조직, 운영주체, 홍보, 평가실태)에 대한 31개 인천 지역축제 항목별 분석 및 항목 간 교차 분석
-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의 부재, 축제 예산의 영세성, 축제 기획 및 운영의 비전문성, 축제 평가시스템의 미비 등과 같은 문제점 도출
- 지역축제를 위한 기본 방향과 지역축제 관련 정책, 그리고 대안적인 평가 체계 정립

## ■ 정책 제언

### 1. 전략적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수립

- 인천 지역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인 중장기 비전에 근거한 ‘일반 축제 활성화’와 ‘인천 대표축제 육성’이라는 목표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 축제 육성 방향, 지원 체계, 평가 체계에 대한 단계적 혹은 병행적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군구의 역할 재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가령, 인천광역시는 인천 지역축제 중장기 계획 수립(근거 법률 개정, 군구 대표축제 지원 및 평가 시스템, 민간 축제 전문가 풀 운영 및 관리)을 하고, 각 군구는 자체 법 제정 및 개정, 지역축제 네트워크 등과 같은 역할의 이원화가 가능함.

### 2. 인천 지역축제 관련 정책의 재설정

- 지역축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부재는 축제의 관성화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축제 지원 정책은 축제정책의 구체화와 더불어 축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함.
- ① **축제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 광역시 단위의 경우, 인천 지역 내 축제 관련 업무를 총괄(정책/예산심의 지원, 축제평가, 축제추진 등)하는 실행기구로서의 축제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함.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우, 축제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 부평구, 서구, 연수구에 불과해 축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축제 관련 조례가 다른 군 구 단위에서도 제정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② 평가와 지원 체계를 연계한 군구 대표축제 지원 정책의 보완 :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의 폐지와 축제 정책을 지원할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기준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평가주체, 평가방법 등) 마련

### 3. 대안적인 평가 체계의 정립

- 인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및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대전제는 평가 체계의 정립에 있음. 대안적인 평가 체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① 평가(체계)의 ‘내적’ 자율성과 독립성 : 기획-준비-시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 ② 평가(체계)의 ‘외적’ 자율성과 독립성 : 평가 자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외적 변수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 ③ 일반시민/지역민 시각에서의 평가(체계) : 지역민이나 축제 참여 시민의 시각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축제의 본질 접근
  - ④ 지역/문화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 :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배제된 하나의 규격화된 인공적인 관광 상품으로의 인식을 지양하고 문화적 접근과 가치가 우위가 된 축제 평가
- 이를 위해서는 축제평가센터와 축제모니터링단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함.
  - ① ‘(가칭)인천축제평가센터’ 설립 : 축제 평가 이외에 지속적인 축제 연구와 각종 자료의 통합적 DB화, 축제 컨설팅 등의 기능 수행, 평가위원들의 유기적 네트워크 집합체인 축제평가위원회 구조보다 시스템적으로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인고, 집중적인 평가수행이 가능한 체계임.
  - ② ‘축제모니터링단’의 활성화 : 조직운영 시스템의 재편을 포함한 모니터링단 운영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자체 연구 세미나 개최, 정기 워크숍 프로그램 활성화, 온라인 커뮤니티나 홈페이지 개설 등), 축제평가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조직운영 시스템 재조정,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단 풀(pool)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일반모니터와 책임모니터), 모니터링 비용 책정 등 예산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축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평가 방법론이 있으며, 이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함.

① **다면적(입체적) 평가** : 평가주체, 평가지표, 평가방법,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 평가의 목적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유기적 결합 내지 교차를 통해 입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많은 예산, 충분한 전문 인력, 그리고 정교한 평가 틀과 지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② **학제적 평가** : 축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고려해 문화(인류)학, 사회학, 환경학, 경제학, 경영학, 관광학, 행정학, 교육학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 걸쳐 있음.

③ **범주별 평가** : 상위적인 평가 분석틀에 포함될 수 없는 개별축제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위해서는 지역축제를 몇 가지 핵심 유형별로 분류(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하여 각 유형별로 특화된 준거 틀에 의해 접근 가능함.



## 【 내용 차례 】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
제2장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	9
제1절 인천 지역축제 전수조사 개요 .....	9
제2절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 .....	14
제3절 인천 지역축제의 문제점 .....	39
제3장 인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과제 .....	49
제1절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49
제2절 지역축제 관련 정책 .....	57
제3절 대안적인 평가 체계 정립 .....	61
[참고문헌] .....	70
[부록 1] 2005 인천 지역축제 개별현황 .....	73
[부록 2] 인천광역시 축제 관련 조례 .....	106

## 【 표 차례 】

〈표2-1〉 인천 지역축제 조사 대상 .....	12
〈표2-2〉 개별 축제 조사 항목 .....	14

〈표2-3〉 시/군구별 축제 수 .....	15
〈표2-4〉 지역축제 범주별 구분 .....	17
〈표2-5〉 인천 지역축제의 축제범주별 구분 .....	18
〈표2-6〉 시/군구 축제범주별 현황 .....	19
〈표2-7〉 인천 지역축제 개최횟수 .....	20
〈표2-8〉 시/군구별 축제 개최횟수 .....	21
〈표2-9〉 인천 지역축제 개최기간 .....	22
〈표2-10〉 축제범주별 평균 개최기간 .....	23
〈표2-11〉 인천 지역축제 개최시기 .....	24
〈표2-12〉 축제범주별 개최시기 .....	26
〈표2-13〉 인천 지역축제 예산규모 .....	27
〈표2-14〉 축제범주별 예산액 .....	28
〈표2-15〉 축제범주별 축제 당 예산액 .....	29
〈표2-16〉 인천 지역축제 자원 구성비 .....	30
〈표2-17〉 군구별 축제 예산 .....	31
〈표2-18〉 인천광역시 축제 관련 조례제정 현황 .....	33
〈표2-19〉 축제위원회 설치 현황 .....	34
〈표2-20〉 인천 지역축제 운영주체 현황 .....	35
〈표2-21〉 홈페이지 유무 현황 .....	36
〈표2-22〉 축제 평가 방식 .....	39
〈표2-23〉 유사 축제별 비교 .....	40
〈표3-1〉 범주별 축제 특성화 전략 .....	54
〈표3-2〉 범주별 평가방법 .....	68

## 【 그림 차례 】

〈그림2-1〉 인천시 축제의 문제요인 개념도 .....	41
--------------------------------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이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역축제의 정체성과 운영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각 시/군구에서 실제로 열리고 있는 축제는 그 개념과 범주에 있어 많은 혼돈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산물로 지역축제가 자리매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축제에 대한 명확한 자기 비전과 정체성 찾기는 지역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축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검증 과정이 요구된다. 가령, 축제 연구를 통한 기존 지역축제 구조 재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체적인 평가 체계에 근거한 축제 운영 실태 파악, 지역축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수립 등이다. 이를 근거로 ‘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기초 조사 및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인천 지역축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축제 범주화를 통한 전수 조사 및 분석에 근거, 지역축제의 실질적 지원에 필요한 학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인천 지역축제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설정 등 중앙 정부와는 다른 지역 단위의 축제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 시/군구 31개 축제에 대한 일반 현황 조사 및 분석, 31개 축제 현황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의제 도출, 인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과제 제시 등을 통해 인천의 대표적 지역축제를 어떻게 개발, 육성하고 군구 단위의 축제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의 축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 대표 축제 개발’이라는 대전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축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다양한 주체들이 바라보는 축제의 단상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각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축제(혹은 축제로 명명되어지는)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조사와 분석 등으로, 앞의 논의에 대한 실질적인 단계를 대신하고자 한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5개 영역의 16개 조사 항목을 토대로 31개 시/군구 축제에 대한 일반현황, 축제 운영 및 축제 평가 현황을 통해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의 부재, 축제예산의 영세성, 축제 기획 및 운영의 비전문성, 축제 평가시스템의 미비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 ‘인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과제’에서는 지역축제를 위한 기본 방향과 지역축제 관련 정책, 그리고 대안적인 평가체계 정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천 지역축제에 대해 논의된 기존 연구<sup>1)</sup>의 방향이 정책적 관점에서 대안 제시적 성격에 머물렀다고 볼 때, 본 연구는 인천 축제의 일반적인 현황 조사와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축제범주별 분류를 통한 평가기준 토대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사전 작업에 충실하고자 했다.

---

1) 이현식, 『인천 지역축제 발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3) 참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축제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이를 위한 지역축제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천 축제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우선, 지역축제 전수 조사를 위해 지자체 방문 및 축제 현장 조사, 지역축제에 대한 기존 자료 조사, 각 축제 홈페이지 조사, 시/군 구 축제 담당자 유선 및 직접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차 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해 지역축제 기획자 및 관련 전문가 자문, 지역축제 관련 포럼 개최를 통한 2차 여론화 과정을 통해 연구 보고서 내용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여전히 나타난다. 인천 지역축제 전수(全數)에 대해 현장 실사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제한된 연구 기간으로 인해 조사 대상이 하반기 축제에만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 축제 담당자 인터뷰나 포럼 개최를 통해 축제 관련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연장선에서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2장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인천 지역축제 전수조사 개요

제2절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

제3절 인천 지역축제의 문제점



## 제2장 인천 지역축제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인천 지역축제 전수조사 개요

#### 1. 조사의 의의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를 특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축제 상품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들 중에서 매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지역축제가 매년 경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수는 2004년 감사원 조사 결과 947개이었으나, 최근에 새로 개최된 축제와 조사에 누락된 축제를 합하면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축제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많이 개최되는 주된 이유는 지역축제가 시설 개발을 초래하지 않고 관광객 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유형으로서, 물리적 환경의 공급과 관광객의 욕구를 기초로 한 수급의 문제를 조직화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관광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축제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독특한 지역문화의 내용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의 부족, 축제 내용의 매력성 부족, 관 주도형 축제, 경영마인드 미흡, 축제 조직자들의 전문성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타 지역축제와의 프로그램 비차별성, 지역성 행사의 부족 등으로 인한 질적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지역축제의 양적 성장 및 질적 하락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문화발전 등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는 전국 지역축제 중 500개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sup>2)</sup>

인천 지역축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3-4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현재 30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인천 지역축제가 양적으로 큰 팽창을 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역축제의 문제점들이 인천 지역에도 나타남으로써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인천 지역축제 현황 조사는 지역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천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하다. 동시에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축제 생산을 위한 단초로 기능할 수 있다.

인천시는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각 군구 대표 축제를 선정해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sup>4)</sup>. 이는 광역 자치단체인 시의 축제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인천 지역축제 활성화를 보다 진전시키는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두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각 군구당 일률적으로 1개 축제를 대표축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평가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균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선택과 집중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지원방식은 예산집행 및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지역축제를 육성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가능한 지역축제를 선택, 집중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발전 가능한 지역축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천시에서는 인천 지역축제 현황과

- 
- 2) '전국 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전국 500개 축제에 대해 지표개발 및 조사설계, 현지조사, 종합개선방안수립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상대상 및 현지 평가대상은 매년 개최되는 축제를 기준으로 하되, 단일 장르의 예술제와 시민의 날 형태는 제외하고 비엔날레, 상업성이 강한 엑스포는 제외되는 3일 이상 지속되는 축제라고 하고 있다.
  - 3) 이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70개), 부산(76개)보다는 적지만, 광주(23개), 대전(15개), 울산(16개)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4) 부평풍물축제의 경우는, 다른 군구축제와는 달리 1999년부터 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다른 군구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축제가 없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 축제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 것은 남구, 계양구, 연수구 등에서 축제가 생기게 된 2003년부터라 할 수 있다.

관련된 자료가 아직까지 미비하고, 이에 대한 평가체계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 지역축제 실태 조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인천 지역축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자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및 대안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둘째, 인천 지역의 문화생산자와 향유자, 군구간의 긴밀한 네트워킹으로 축제 이해 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인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인천 시 및 군구의 축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2. 조사 원칙 및 조사 개요

### 1) 조사범위 및 대상

이번 조사의 범위는 인천 시/군구 지원 축제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전수조사<sup>5)</sup>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 성격이 강한 동(洞)단위 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은 제외하였다.

표본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으로 분석 결과가 모집단을 잘못 판단할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2005년도 문화관광부 전국 지역축제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을 전국 지역축제수의 절반인 500개로 한정하였으나, 인천 지역축제의 경우 모집단이 크지 않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표본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

5) 2004년 문화연대에서 실시한 지역축제 전수조사에서 인천지역은 총 21개 축제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지역축제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개최되는 모든 종류의 축제로, 축제의 일반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일탈성, 유희성, 제의성, 대동성, 주기적 연례성을 지니며, 지역과의 직간접적인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시행하는 축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이벤트나 전시박람회, 일회성 행사, 그리고 지역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축제는 제외한다.”

〈표2-1〉 인천 지역축제 조사 대상

지역	축 제 명	시기	주최/주관	횟수	축제예산(백만원)
인천시 (9개)	인천해양축제	8월	인천광역시	3	300(시비)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10월	인천광역시	4	300(시비)
	인천음식축제	9월	인천광역시/한국음식업인천시지회	4	265(시비)
	인천하늘축제	9월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공사	2	600(시비300/공항공사300)
	월미공원벚꽃축제	4월	서부공원사업소	3	15(시비)
	아름다운인천찾기대회	10월	서부공원사업소	4	45(시비)
	월미평화축제	10월	월미평화축제조직위원회	4	45(시비)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10월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준비위원회	10	144(시비16/자부담68/기타60)
	인천대공원벚꽃축제	4월	동부공원사업소	10	20(시비)
중구 (7개)	차이나타운벚꽃축제	4월	중구	8	80(구비)
	용유을왕리해변축제	7월	중구/을왕리 해수욕장변영회	8	30(구비)
	연안어시장축제	10월	중구/연안어시장축제추진위원회	5	110(구비20/자부담90)
	자장면축제	10월	중구	4	30(구비)
	월미관광특구문화축제	10월	중구	3	100(시비50/구비50)
	월미축제	10월	중구/월미축제추진위원회, 중구문화원	15	50(구비30/자부담20)
	월미주말축제	10월	중구/중구문화원	1	20(구비)
동구 (1개)	화도진축제	5월	동구	16	120(시비50/구비70)
남구 (2개)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1월	남구/인하대	2	225(시비50/구비175)
	학산젊은연극제	9월	남구/학산문화원	2	94(시비20/구비50/자부담24)
연수구 (1개)	능허대축제	9월	연수구/연수구축제위원회	2	190(시비50/구비140)
남동구 (1개)	소래포구축제	10월	남동구/인천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	5	243(시비50/구비100/자부담53/기타40)
부평구 (2개)	부평풍물축제	5월	부평구/부평구축제위원회	9	450(시비70/구비380)
	The Old Music Festival	9월	부평구/부평구축제위원회	3	75(구비)
계양구 (1개)	계양산축제	10월	계양구/계양구축제추진위원회	3	120(시비50/구비70)
서구 (2개)	랑랑축제	10월	서구/서구축제추진위원회	3	100(시비50/구비50)
	서곶문화예술제	9월	서구/서구문화원, 서구문화예술인회	10	140(구비)
강화군 (5개)	강화고인돌문화축제	9월	강화군/고인돌축제추진위원회	8	380(시비60/군비320)
	삼랑성역사문화축제	10월	전등사/삼랑성역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	5	75(군비25/자부담50)
	고려산진달래축제	4월	고려산진달래축제추진위원회	3	64(군비25/자부담39)
	선원산논두렁연꽃축제	7월	선원산논두렁연꽃축제추진위원회	3	10(군비5/자부담5)
	강화새우젓축제	10월	경인북부수협/강화도새우젓축제위원회	2	50(시비20/군비20/자부담10)

\* 개최횟수 및 축제예산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2) 조사개요

- (1) 조사기간 : 2005. 9 ~ 2006. 1(5개월)
- (2) 조사대상 : 인천 시/군구 지원 축제
  - 상반기 축제 : 9개 / 2005. 1 ~ 8(자료 조사)
  - 하반기 축제 : 22개 / 2005. 9 ~ 12(현장 실사 및 자료 조사)
- (3) 조사 범위 : 인천광역시 및 9개 군구(옹진군 제외)
  - 인천광역시/1개 군(강화군)
  - 8개 구(계양구/남구/남동구/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 3) 조사방법 및 내용

### (1) 조사방법

조사는 크게 문헌연구 조사, 전문가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현지 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 문헌연구를 통한 지역축제에 대한 내용분석은 지역축제와 관련된 논문, 평가 보고서 등 국내외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를 중심으로 지역축제의 정체성 관련 이론 확립 및 평가항목을 도출했다.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지역축제 네트워크 포럼 개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조사원칙, 조사지표 및 평가지표를 확정했고, 포럼을 통해 인천 지역축제의 전반적 현황 및 기획, 운영 시스템, 평가 시스템, 자원봉사 시스템 등 인천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현지 조사 분석은 각 시/군구별 축제 홈페이지 조사, 시/군구 축제 담당자 대상으로 한 인터뷰, 지자체 방문 및 축제 현장 조사, 지역축제 기획자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2) 조사내용

기존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조사 및 지역축제 포럼 결과를 토대로 다음(<표2-2> 개별 축제 조사 항목 참조)과 같은 조사 항목을 설정하였다.

크게 개최개요(개최시기/주제/일시/기간/주기/장소), 기획운영(주최·주관/후원/기획·운영주체/기획취지/조례제정여부/예산), 프로그램(축제범주/프로그램), 홍보(홈페이지), 평가(평가시스템) 등 5가지 영역의 16가지 기본 조사 항목을 가지고 31개 인천 지역축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2-2〉 개별 축제 조사 항목

개최시기/주제	* 축제 측에서 공식 제기한 것을 원칙으로 함.
일시/기간/주기	
장 소	
주최/주관	
후 원	
기획·운영주체	* 실질적인 기획 주체
기획취지	* 축제의 목적 및 배경
조례제정여부	* 법제화된 지원 정책
예 산	* 시/군구 지원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축제 총예산
축제범주	*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유형적 성격 중심으로 범주화
프로그램	* 축제별 프로그램
홈페이지	* 자체 축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상황
평가시스템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구분하여 명시함
기타 특기사항	* 해당 사항에만 기재

## 제2절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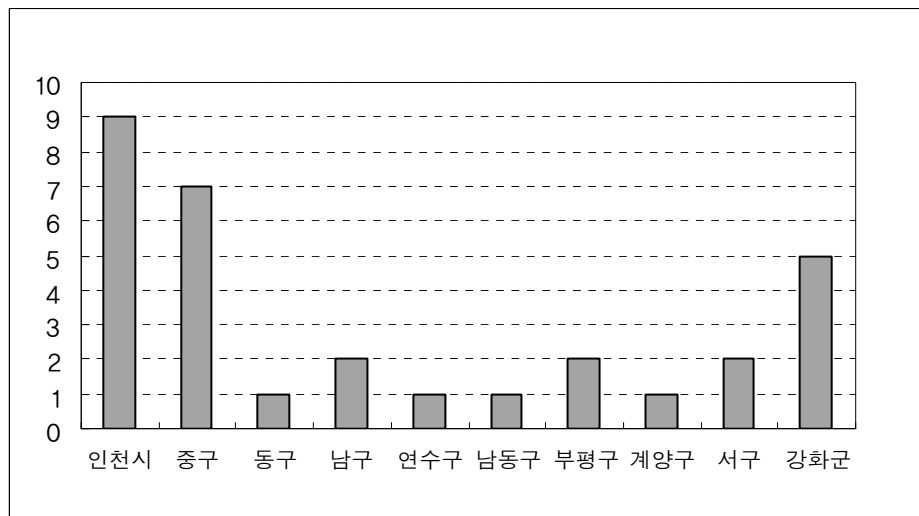
### 1. 일반 현황

#### 1) 시/군구별 축제 수

인천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조사한 결과 총 31개가 되었고, 이 중 25개가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다(2005년 현재). 인천 지역축제를 시/군구



별로 구분하면 인천시가 9개, 중구 7개, 강화군 5개로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구에서는 1개나 2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인천시에 포함된 축제 중에는 시가 직접 관여하는 축제 외에 인천광역시 사업소인 서부공원 사업소(2개)와 동부공원사업소(1개)가 주관하는 축제, 그리고 순수 민간 축제 위원회<sup>6)</sup>(2개)가 주관하는 축제가 있다.



〈표2-3〉 시/군구별 축제 수

(단위: 개)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계
축제수	9	7	1	2	1	1	2	1	2	5	31

또한 인천시를 제외한 각 군구 축제의 절반 이상이 중구와 강화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축제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 중구의 경우, 구도심 지역으로 차이나타운과 근대 건축물, 월미관광특구, 인천 공항, 인천항, 연안부두 등이 입지해 있고, 강화군은 전등사, 고려궁지, 고인돌 공원 등 역사 문화 유적이 밀집되어 있고 연륙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6)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직접적인 시비 보조 사업은 아니지만, 인천문화재단문화예술포럼지원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어, 공공재원이라는 개념으로 시비의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

## 2) 축제범주별 구분

축제범주는 특정 관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축제들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축제는 역사, 개최목적과 장소, 행사 내용 및 행사 구성, 주제, 지향성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sup>7)</sup> 하지만, 지역축제의 성격이 다양화되고 동시에 대부분이 종합적인 축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범주별 접근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럼에도, 일률적인 동일한 기준으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상이한 수많은 지역축제를 평가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범주별 구분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작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평가기준도 일반적인 지표를 통한 경향적인 분석이 아닌, 축제의 범주별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축제를 생산해 내는 주체들에게도 범주별 축제의 성격 및 문제점이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지향하고자 하는 축제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역축제의 내재적 성격과 내용을 중심으로 축제를 범주화하고 있는 문화연대의 축제범주<sup>8)</sup>를 적용하기로 한다. 문화연대에서 제시한 축제별 범주는 아래 <표2-3>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 7) 강인원·고호석,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축제행사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제5권 제1호, 2003), p.11.  
 8) 김규원(2002 지역축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은 축제범주를 ‘개최목적’에 따라 나누고 있다. 이는 축제를 평가하는 입장과 축제를 만들어가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축제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축제의 범주	축제 개최의 목적	축제 성과 기준의 기준
예술페스티벌	해당 예술 장르의 발전 저변 인구 확보 및 건본시 (전통예술장르도 포함)	해당 장르의 예술행사에 대한 충분한 표현 관객에게 전달되는 성과 여부
전통지역축제	전통적인 의미의 대동 화합 일탈 및 전통문화 느끼기	지역 공동체의 대동 축제적 의미의 화합 및 대동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산업활성화	지역특산물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 여부
관광자원축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지역 관광 수입 확대 및 관광산업 이미지 홍보 성공 여부

〈표2-4〉 지역축제 범주별 구분

축 제 유 형	내 용 적 성 격
문화예술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연극, 미술, 무용, 음악 등 문화예술 장르적 성격의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적 가치 및 완성도</li> <li>■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 및 문화예술의 향유</li> </ul> </li> </ul>
전통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전통성에 기반을 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전통성의 복원) 및 현대적 적용</li> <li>■ 전통문화적 특성의 부각(프로그램 등)</li> </ul> </li> </ul>
지역특산물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전통적인 물품/산물을 매개로, 물품/산물의 전시와 상품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산물의 효과적인 관광 상품화(지역경제의 기여도)</li> <li>■ 지역특산물을 매개로 한 문화적 접근</li> <li>■ 지역특산물과 문화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관성</li> <li>■ 지역특산물과 문화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관성</li> </ul> </li> </ul>
지역특성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자연적/인공적 혹은 유형적/무형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를 새로운 축제아이템으로 특성화해서 개발한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축제아이템의 문화적 가치</li> <li>■ 지역특성과 축제와의 상호연관성</li> <li>■ 지역문화발전과의 연계</li> </ul> </li> </ul>

\* 자료 : 『2002 지역축제평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참고(인용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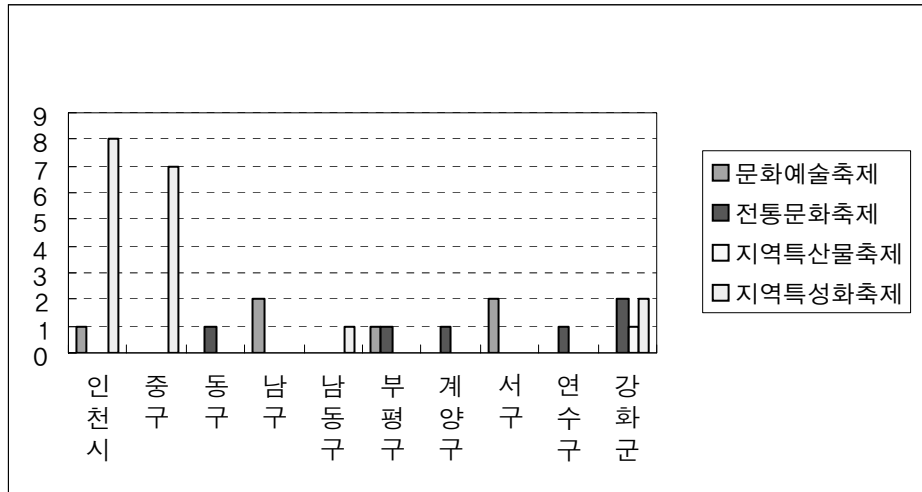
위의 축제범주별 구분 근거를 살펴보면, 지역축제의 경우는 하나의 범주적 특성만으로 묶어낼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4가지 축제범주 즉,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를 통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주효하게 부각되는 유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범주화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지역축제에 대한 입체적 분석 속에서 개별 축제의 기획취지, 축제아이템, 방향성, 축제의 테마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배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인천 지역축제도 이러한 축제범주별 구분에 근거해 조작적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축제범주별 특성이 중복된 축제의 경우에는 보다 집중화되고 비중이 높은 축제 성격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가령, 지역특성화축제와 지역특산물축제의 경우는 다른 축제범주보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적인 현

실성을 가장 중심축에 두기 때문에 축제아이템의 ‘상품화’에 주력하며 축제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먼 부대행사가 다수 진행되는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2-5〉 인천 지역축제의 축제범주별 구분<sup>9)</sup>

축제범주별 유형	축 제 명	지 역
문화예술축제(6개)	○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인천광역시
	○ The Old Music Festival	부평구
	○ 랑랑축제	서구
	○ 서곶문화예술제	서구
	○ 학산젊은연극제	남구
	○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남구
전통문화축제(6개)	○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강화군
	○ 강화고인돌문화축제(*)	강화군
	○ 계양산축제	계양구
	○ 부평풍물축제	부평구
	○ 능허대축제(*)	연수구
	○ 화도진축제	동구
지역특산물축제(1개)	○ 강화새우젓축제	강화군
지역특성화축제(18개)	○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인천광역시
	○ 인천하늘축제	인천광역시
	○ 인천해양축제	인천광역시
	○ 아름다운인천찾기대회	인천광역시
	○ 인천대공원벚꽃축제	인천광역시
	○ 인천음식축제	인천광역시
	○ 월미평화축제	인천광역시
	○ 월미공원벚꽃축제	인천광역시
	○ 자장면대축제	중구
	○ 월미주말축제	중구
	○ 월미축제	중구
	○ 월미관광특구문화축제	중구
	○ 용유을왕리해변축제	중구
	○ 차이나타운벚꽃축제	중구
	○ 연안어시장축제	중구
	○ 인천소래포구축제(*)	남동구
	○ 고려산진달래축제	강화군
	○ 선원사논두렁연꽃축제	강화군



〈표2-6〉 시/군구 축제범주별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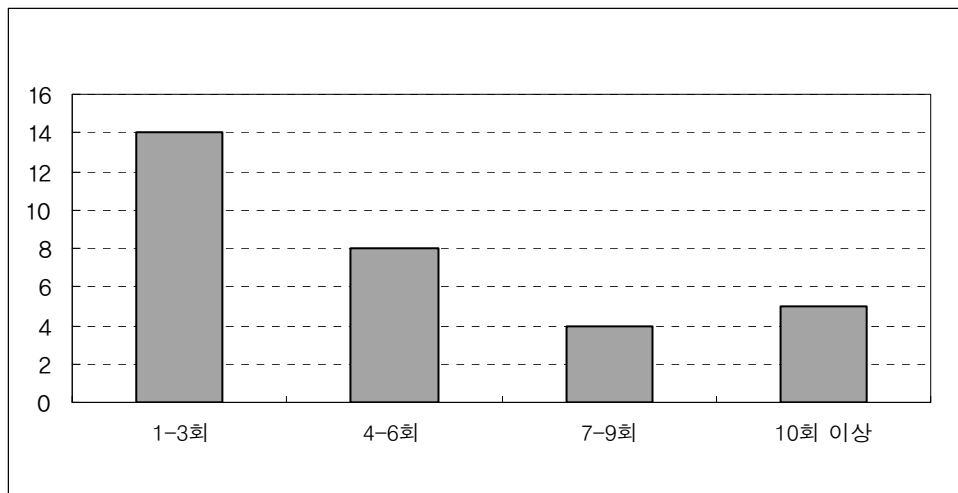
구 분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계
인천시	1			8	9
중 구				7	7
동 구		1			1
남 구	2				2
남동구				1	1
부평구	1	1			2
계양구		1			1
서 구	2				2
연수구		1			1
강화군		2	1	2	5
계	6	6	1	18	31

전체를 살펴보면, 지역특성화축제가 1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통문화축

- 9) 2004년 문화연대가 실시한 지역축제전수조사에 나타난 인천 지역축제(총 21개)에 대한 축제별 범주화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강화고인돌문화축제(\*)와 능허대축제(\*)의 경우는 '지역특성화축제'로, 인천소래포구축제(\*) '지역특산물축제'로 구분되어졌으나, 본 조사에서는 축제별 현재의 내재적 성격과 향후 지향성에 보다 집중해 상기와 같이 구분을 하게 되었다. 능허대 축제의 경우, '능허대'라는 전통문화를 부각시킬 만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역특성화축제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역사적 기반을 띤 지역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고 있는 축제의 배경이나 목적이 전통문화에 보다 근접하다고 판단되어 전통문화축제의 유형으로 범주화시켰다.

제와 문화예술축제가 각각 6개, 그리고 지역특산물축제가 1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개최되는 축제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축제 수가 많은 인천시(8개/9개)와 중구(7개/7개)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특성화축제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경우는 모두 문화예술축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화군의 경우에는 전통문화축제 2개와 지역특산물축제 1개, 지역특성화축제 2개로 축제유형이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3) 개최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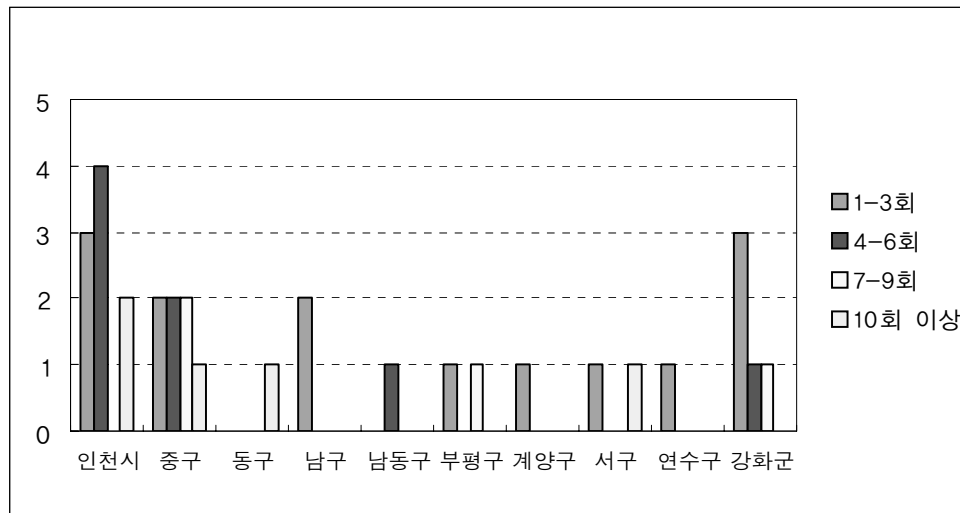
〈표2-7〉 인천 지역축제 개최횟수

(단위: 개)

개최횟수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계
축제 수	14	8	4	5	31

인천 지역축제의 개최횟수(2005년 현재)를 살펴보면, 1-3회 이하가 14개, 4-6회가 8개로 6회 미만인 축제 수가 전체 축제 수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에는 신생 축제가 많은 특징을 볼 수 있다. 반면, 10회 이상 개최된 축제는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구의 월미주말축제는 2005년 처음 개최되는 축제

개최횟수가 가장 적은 축제에 해당되었고, 동구의 화도진 축제와 중구의 월미 축제는 각각 16회와 15회로 인천 지역축제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축제로 나타나고 있다.



〈표2-8〉 시/군구별 축제 개최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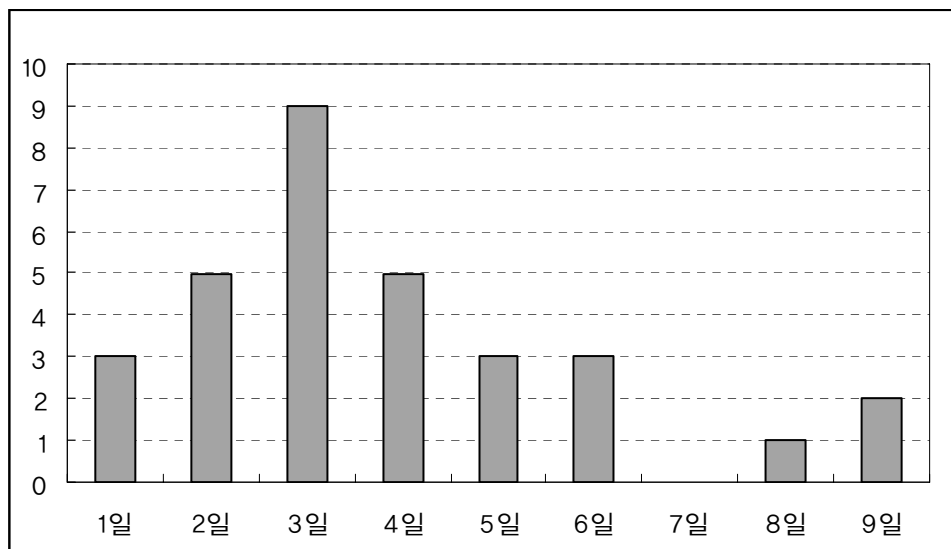
(단위: 개)

구 분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계
인천시	3	4		2	9
중 구	2	2	2	1	7
동 구				1	1
남 구	2				2
남동구		1			1
부평구	1		1		2
계양구	1				1
서 구	1			1	2
연수구	1				1
강화군	3	1	1		5
계	14	8	4	5	31

개최횟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구, 계양구, 연수구 등은 3회 미만 신생 축제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는 2002년 이후부터 각 기초자치단체가 축제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 대부분이 개최횟수 4회를 넘지 않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4) 축제 개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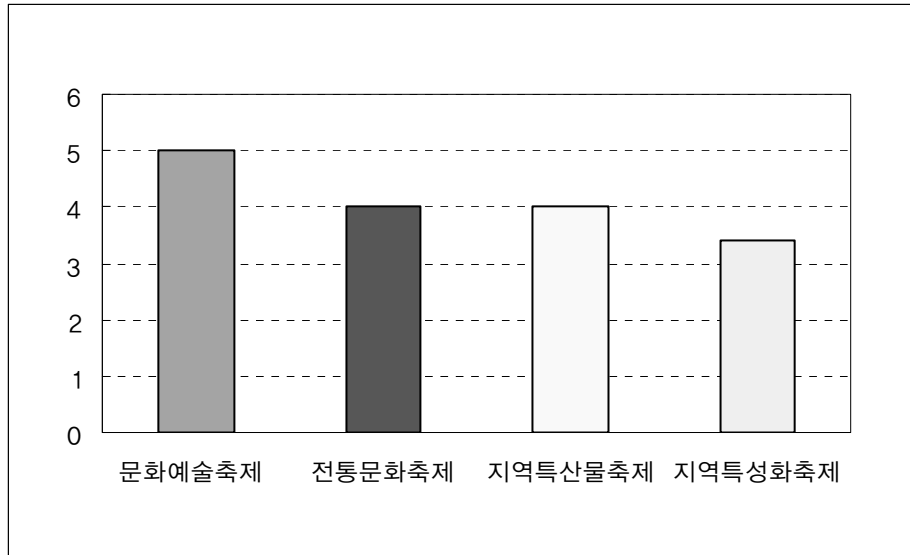
〈표2-9〉 인천 지역축제 개최기간

(단위: 개)

개최기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계
축제 수	3	5	9	5	3	3	0	1	2	31

인천 지역축제의 개최기간을 살펴보면, 1-3일 간 축제가 17개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축제기간이 1일인 축제(랑랑축제, 아름다운 인천찾기대회, 월미공원벚꽃축제)의 경우도 3개로 나타났으며, 최대 기간인 9일에 해당되는 축제(인천대공원벚꽃축제, 서곶문화예술제)도 2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개최기간은 3일로, 9개 축제가 이에 해당되었다. 축제 개최기간이 너무 길면 축제의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개최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방문객 유치와 효율적인 행사운영이 어려워 단순 이벤트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있다.





〈표2-10〉 축제범주별 평균 개최기간

(단위: 일)

구 분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평균
평균개최기간	5	4	4	3.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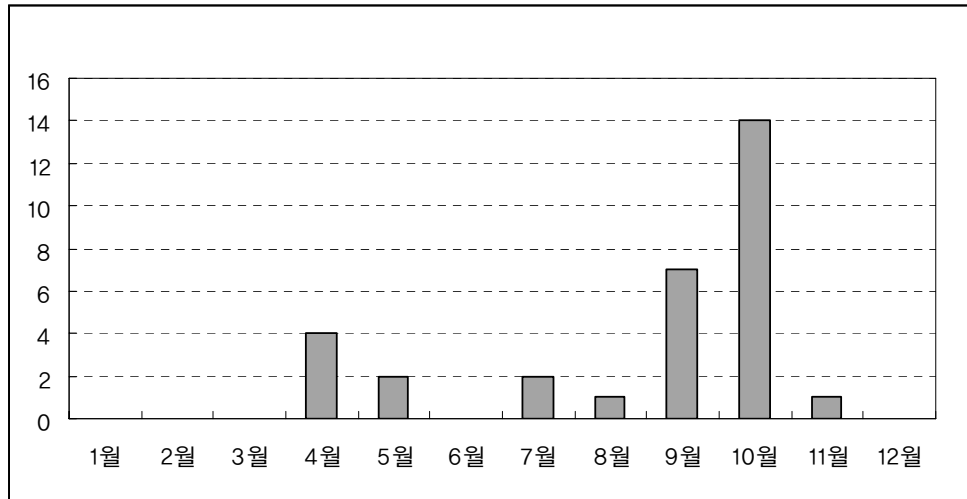
또한, 축제범주별 평균 개최기간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축제가 5일로 가장 길며, 전통문화축제와 지역특산물축제가 각 4일 간, 지역특성화축제가 3.4일 간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축제는 6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축제에 비해 대체적으로 단기보다는 중장기인 비율을 보였다.

### 5) 축제 개최시기

인천 지역축제의 개최시기를 보면 계절적으로 가을(22개, 71%)과 봄(6개, 19%)에 대부분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가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별로 보면 10월에 가장 많은 14개 축제가 개최되고 다음으로 9월에 7개, 4월에 4개로 나타난다.

4월(봄)에 개최되는 4개의 축제 중 3개(월미공원벚꽃축제, 인천대공원벚꽃

축제-인천시, 차이나타운벚꽃축제-중구)가 벚꽃을 축제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고, 9-10월(가을)에 개최되는 축제의 대부분은 계절성과 관련된 소재 활용 보다는 집객이 용이한 일반적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표2-11〉 인천 지역축제 개최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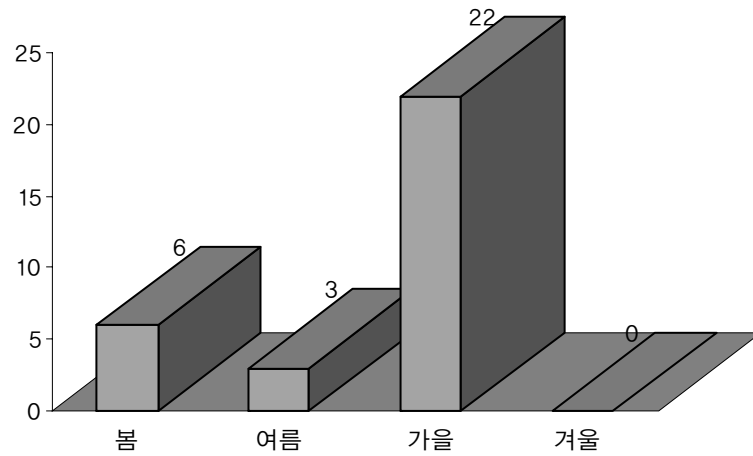
(단위: 개)

개최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축 제 수	0	0	0	4	2	0	2	1	7	14	1	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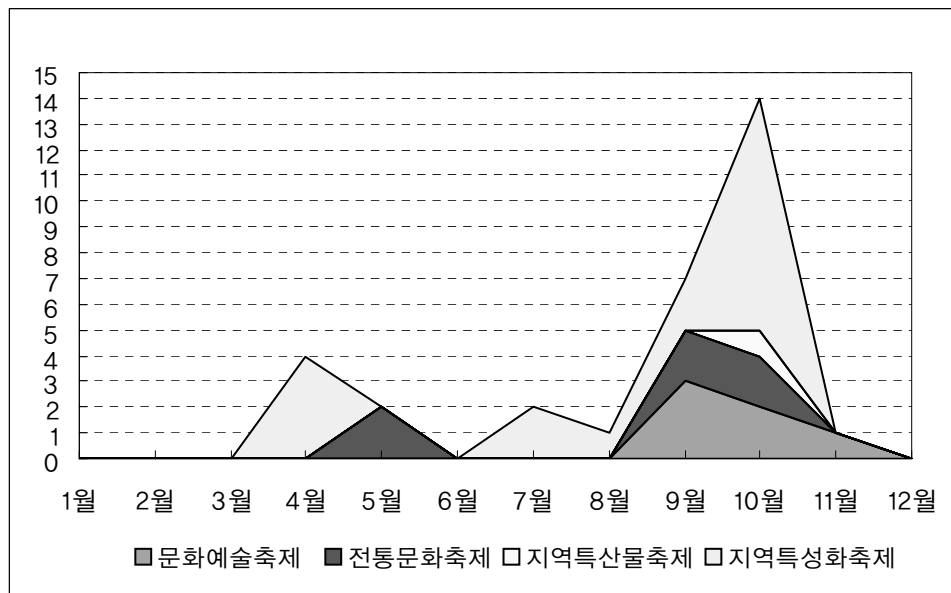
\* 개최기간인 두 달에 걸쳐 있는 축제는 개최 일을 기준으로 상정하였음.

여름에 개최되는 축제는 인천해양축제, 용유율왕리축제 등과 같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바다’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계절적 특성이 갖는 한계로 3개의 축제만이 개최되고 있었다. 여름과 겨울에 축제 개최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은 기후에 기인한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행사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문객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최시기가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것은 유독 인천 지역축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축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sup>10)</sup>

10) 16개 광역시도(인천지역 포함)를 대상으로 한 『2004지역축제전수조사』(문화연대, 2004) 지역별 축제시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5월)와 제주도(8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월에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봄과 가을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많은 축제가 개최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으로 여름과 겨울이 갖고 있는 계절적 특성을 이용한 축제 소재를 개발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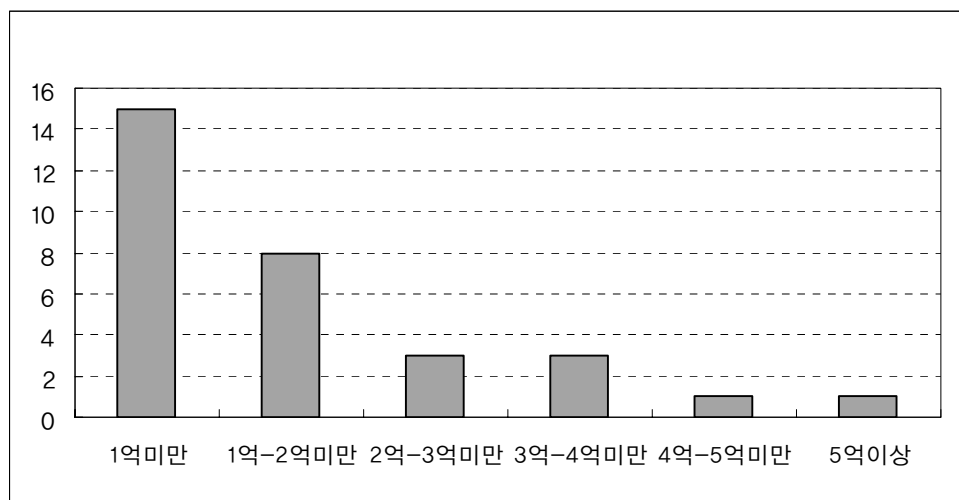
〈표2-12〉 축제범주별 개최시기

(단위: 개)

구분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계
1월					
2월					
3월					
4월				4	4
5월		2			2
6월					
7월				2	2
8월				1	1
9월	3	2		2	7
10월	2	2	1	9	14
11월	1				1
12월					
계	6	6	1	18	31

축제범주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0월에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축제는 9월(3개), 10월(2개), 11월(1개) 가을에 모두 집중되어 있고, 전통문화축제의 경우, 5월, 9월, 10월로 각 2개 축제가 고루 개최되고 있다. 지역특산물은 10월(1개), 지역특성화축제는 10월(9개)이 가장 많고, 4월(4개), 7월/9월(2개), 8월(1개)순으로 나타났다.

## 6) 축제 예산



〈표2-13〉 인천 지역축제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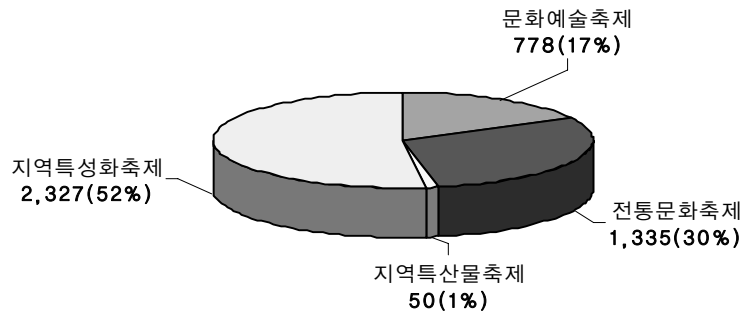
(단위: 개)

예 산	1억 미만	1억-2억미만	2억-3억미만	3억-4억미만	4억-5억미만	5억 이상	계
축제수	15	8	3	3	1	1	31

2005년도 인천 지역축제 예산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의 재원조달은 크게 시비, 군구비 및 자부담비로 구성되며, 31개 축제를 대상으로 한 총 예산 규모는 44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축제위원회나 민간 주최 단체의 자부담 비용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소속 군과 구에서 소요한 예산 규모는 총 34억 6천 6백만 원으로, 이는 인천 시 자체 주관 축제, 9개 군구별 대표축제에 대한 지원<sup>11)</sup>, 자치 군구 축제에 대한 예산을 모두 포함한 액수이다.

자체 부담 예산이 포함된 경우는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인천시), 연안어시장축제(중구), 월미축제(중구), 소래포구축제(남동구), 학산젊은연극제(남구)와 강화군 축제 중 강화고인돌문화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축제(삼랑성역사문화축제, 고려산진달래축제, 선원산논두렁연꽃축제, 강화새우젓축제)에서 나타나는 정도이다. 인천시의 예산규모는 1억 미만이 15개로, 대부분 축제가 예산 면에서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개최되는 축제는 선원산 논두렁연꽃축제(강화군)로 예산이 1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천하늘축제로 예산액이 6억 원이다. 군구별로는 부평풍물대축제가 4억 5천만 원, 강화고인돌문화축제가 3억 5천만으로 예산규모가 다른 축제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 인천광역시는 올 해 군구 대표축제 지원금이 총 3억 9천만 원으로, 지난 해 4억 7천만 원에 비해 19%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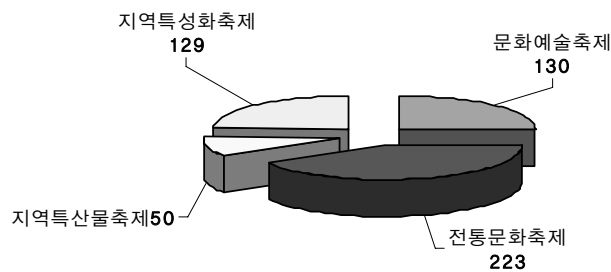


〈표2-14〉 축제범주별 예산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계
축제예산액	778	1,335	50	2,327	4,490
백분율 (%)	17	30	1	52	100

인천 지역축제 총 예산액 4,490백만 원을 축제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역특성화축제에 가장 많은 2,327백만 원(52%)이 소요되었고, 다음으로 전통문화축제 1,335백만 원(30%), 문화예술축제 778백만 원(17%), 지역특산물축제가 가장 적은 50백만 원(1%)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산 차이는 축제범주별 축제 개최 수 차이에 따른 것이나, 축제범주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2-15〉 축제범주별 축제 당 예산액

(단위 : 백만 원, 개)

구 분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계
축제예산액	778	1,335	50	2,327	4,490
축 제 수	6	6	1	18	31
축제당예산액	130	223	50	129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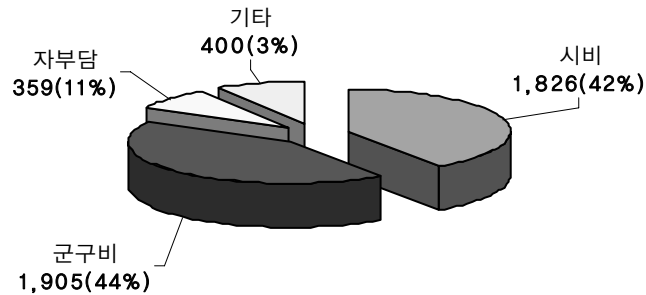
이는 축제범주별 축제 당 예산액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평균 예산액은 145백만 원으로, 전통문화축제가 223백만 원, 문화예술축제 130백만 원, 지역특성화축제 129백만 원이며, 지역특산물축제는 평균 예산액보다 낮은 5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문화축제의 경우는 문화예술축제와 축제 수는 같으나, 축제 당 예산액은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축제예산의 재원구성

인천지역 31개 축제의 재원 구성을 시비, 군구비, 자부담, 기타 예산으로 살펴볼 때, 총 예산액 4,490백만 원에서 군구비 1,905백만 원(44%)과 시비 1,826백만 원(42%)을 합친 보조금은 3,731백만 원(86%)이며, 이에 비해 자부담 359백만 원(11%)과 기타 예산<sup>12)</sup> 400백만 원(3%)은 759백만 원(14%)으로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축제가 인천 지역축제의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운영 주체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전체 31개 중 21개를 차지하고 있지만, 순수 민간 운영 축제는 6개에 불과하다(<표2-16> 인천 지역축제의 운영주체 현황 참조).

축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자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간 운영 축제의 경우, 축제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축제 운영에 있어서도 완전한 자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

12) 기타 금액은 공동주최에 따른 타 지원금이나 협찬 등에 따른 예산으로 분류했다.



〈표2-16〉 인천 지역축제 자원 구성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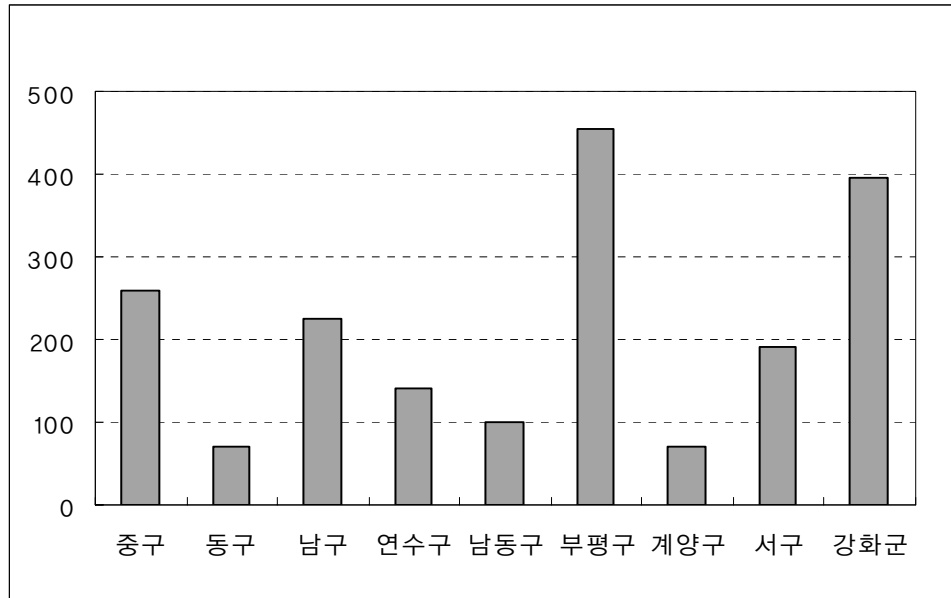
재원조달 방안	시비	군구비	자부담	기타	계
금 액	1,826	1,905	359	400	4,490
백분율 (%)	42	44	11	3	100

군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민간이 주관하는 축제를 제외하면, 축제예산 재원의 대부분은 군구비로 충당된다. 군구별 축제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평구 455백만 원, 강화군 395백만 원, 중구 260백만 원 순으로 축제 예산이 많은 반면, 동구와 계양구가 각각 70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축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의 축제예산이 많은 것은 다른 군구에 비해 축제 수가 많기 때문이며, 강화군보다 축제 수가 많은 중구의 축제 예산이 강화군보다 적은 것은 축제 당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축제예산이 가장 많은 부평구<sup>13)</sup>의 경우에는 중구와 강화군과 같이 ‘소액다건’식의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다액의 예산을 부평풍물축제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군구 축제에 비해 부평풍물축제가 시비 지원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sup>14)</sup>

13) 부평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연간 행사를 살펴보면 부평풍물대축제(6월)와 The Old Music Festival(10월)을 제외하고도 신년음악회(1월), 정월대보름달맞이(2월), 한여름 밤의 드림콘서트(8월) 등 군소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 부평풍물축제는 2006년도 군구별 대표 축제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다른 군구 축제(3천만 원)의 5배 되는 액수이다.





〈표2-17〉 군구별 축제 예산

(단위 : 백만 원)

지 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계
축제 예산	260	70	225	140	100	455	70	190	395	1,905

## 2. 축제 운영 실태

### 1) 축제관련 조례제정

지역축제에 있어 시/군구별 축제관련 조례 제정은 체계적인 축제지원의 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조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예산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축제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인천광역시시범 시민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시범시

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구(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연수구(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부평구, 서구, 연수구 이외의 다른 군구에서는 축제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양구의 경우, 2006년도에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목적, 위원회 설치/기능/구성, 사업비 보조 및 감독,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사업계획서 제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부평구와 연수구의 경우는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기획단 운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운영이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성격이 책임지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2000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의 경우, 축제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위원회 활동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축제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성공적인 축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sup>15)</sup>에서도 계속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축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

15) 이현식, 『인천 지역축제 발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3)  
“한국의 지역축제 지원 정책 현황에 관한 연구”, 『문화도시로 가는 길』 (다인아트, 2004) 참조

〈표2-18〉 인천광역시 축제 관련 조례제정 현황

지 역	조 례 명	구 성	내 용	해당축제수
인천시	인천광역시범시민 축제지원에관한조례	독립조례 (총 8조)	목적,사업비보조및감독,공무원 파견,위원회설치·기능·구성,사 업계획서제출	1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독립조례 (총 15조)	목적,축제위원회설치,기능,구 성위원임기,위원장등의직무,회 의,위원의해촉,고문및자문위원 위촉,기획단운영,사업비보조및 감독,수당및여비,사업계획서제 출,협조,축제위원회 운영세칙	2개
서 구	인천광역시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문화예술축제지원)	구민축제개최,축제위원회설치, 축제위원회의기능,구성등,위원 장등의직무,회의,위원의위촉, 간사,서기,고문및자문위원의위 촉등,상임위원회,사업비의보조 및감독,수당및여비,사업계획서 제출등,협조,시행규칙	2개
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장 (문화예술축제지원)	구민축제개최,축제대상사업,축 제위원회설치,축제위원회의기 능,위원회의구성등,위원의임 기,위원장의직무,회의,위원의 해촉,고문및자문위원회의촉등, 운영기획단운영등,사업비의보 조및감독,수당및여비,사업계획 서제출등,행정협조등,축제위원 회세칙	1개

\* 주: 2000년 인천축축제를 개최하면서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사실상 사장된 조례임.

\*\* 자료 : 『인천 지역축제 발전 방안』 (2003)을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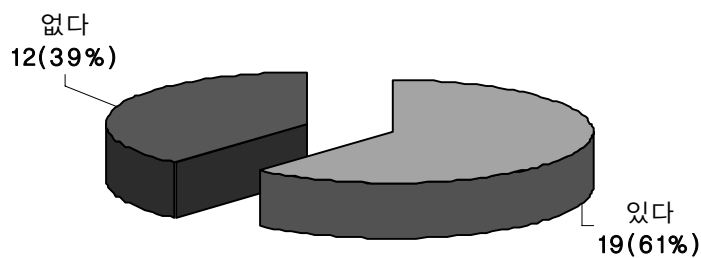
## 2) 축제조직

축제조직은 축제위원회<sup>16)</sup>와 축제사무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  
제위원회는 군구 단체장, 지역문화 관련단체, 지역상공인, 지역대학교수 등 약  
20-30여명(고인돌 축제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제위원회의 기능은 일  
반적으로 행사기획, 홍보, 운영관리 등 축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심의 및 결

16) 축제위원회는 축제조직위원회, 축제준비위원회, 축제조직위원회 등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축제 관련 민간 조직으로 기획과 운영에 있어 얼마만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정하는 조직인 반면, 축제사무국은 예산집행, 행정지원, 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축제위원회가 없는 축제의 경우, 축제사무국도 운영되지 않으며 대신 모든 축제운영 전반을 기획사에 의뢰하고 있다. 인천 지역축제 중 축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9개로 전체 축제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축제의 경우, 축제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평풍물대축제는 상설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축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예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2-19〉 축제위원회 설치현황

(단위 : 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유	무
축 제 수	19	12

### 3) 축제 운영주체

축제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광역단체 중심형 축제 : 광역단체가 중심이 되는 축제
- 기초단체 중심형 축제 : 기초단체가 중심이 되는 축제

-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축제 : 자치단체가 주최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 문화원, 예총, 청년회, 협의회, 번영회, 보존회, 사업회 등이 주관하는 축제
- 민간 중심형 축제 : 축제위원회, 농협, 예총, 보존회,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축제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른 인천 지역축제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혼합형으로 운영되는 축제가 15개로 가장 많은 반면, 광역단체 중심형과 기초단체 중심형으로 운영되는 축제는 각각 5개씩으로 나타났다. 민간 중심형으로 운영되는 축제는 월미평화축제,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와 강화군에서 강화고인돌문화축제 이외에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4개 축제가 이에 속한다.

〈표2-20〉 인천 지역축제 운영주체 현황

(단위 : 개, %)

운 영 주 체	축 제 수	백분율(%)
광역단체 중심형 축제	5	16
기초단체 중심형 축제	5	16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축제	15	48
민간 중심형 축제	6	20
계	31	100

#### 4) 축제 홍보

최근에 축제예산항목 중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도 이를 관람하는 방문객이 적으면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구별 축제예산에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능허대축제 20%,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화도진축제가 각각 1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축제는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보비의 상당부분은 행사유인물 제작비용이 차지하며 이외에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부평풍물대축제 등 몇몇 축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군구나 인천 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지역축제의 경우, 홍보효과가 가장 큰 것은 온라인 홍보로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인천 지역축제의 경우 16개 축제(51%)가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것<sup>17)</sup>으로 나타나 축제 홍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21〉 홈페이지 유무 현황

(단위 : 개)

자제 홈페이지	있다	없다	계
축 제 수	15	16	31

### 3. 축제 평가 실태

평가(evaluation)는 어떤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축제 평가는 평가범주에 따라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outcome evaluation)로 구분된다.

형성평가는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사업 타당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축제 개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되는 평가로 사전평가라 할 수 있다. 즉, 축제

17) 자체 URL를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의미함.

가 개최될 경우 나타나게 될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형성평가를 통해서 축제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 성공적인 축제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데 기여를 한다.

과정평가는 기획, 운영 등 축제 준비과정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말한다. 과정평가는 축제기획 및 축제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으며, 축제 준비 과정이 결과물인 축제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축제성과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기여를 한다.

산출평가는 축제 개최 이후에 축제 성과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축제의 실질적 효과와 영향, 전반적인 가치와 전체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및 결함을 평가하는 것이다. 산출평가는 축제의 개최 목표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 특히, 목표달성이나 성취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축제 개최 이후에 나타나는 파급효과의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대부분의 인천 지역축제의 경우 형성평가 절차를 생략한 채 개최되었다. 인천 시민들은 과거 인천시에서 주관한 ‘세계 춤 축제’, ‘세계 범선 축제’가 한 번만 개최되고 소멸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축제의 개최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축제 개최 의사결정 이전에 축제의 개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형성 평가가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인천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형성평가는 필요 없고 과정평가와 산출평가가 주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축제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된다. 내부평가는 축제 조직 자체에서 수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외부평가는 축제 조직과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축제를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는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둘째는 관리 개선방법을 발견하기 위해, 셋째는 축제 프로그램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넷째는 축제의 성공 또는 실패를 측정하기 위해, 다섯째는 비용과 편익을 판단

하기 위해, 여섯째는 축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일곱째는 스폰서와 관계당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덟째는 승인, 신뢰, 지원을 얻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평가결과는 차기 축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피드백 자료로 사용되지만,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내부평가만을 수행하는 경우 양호한 평가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 지역축제 대부분은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주안미디어축제, 부평풍물대축제, 능허대축제, 강화고인돌문화축제 등 4개 축제의 경우에는 방문객의 축제만족도 평가항목 정도에 대해서만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내부평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기획사에 행사기획 및 운영을 모두 의뢰한 축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축제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축제위원회의 축제 평가는 축제조직상 축제사무국이나 축제 운영조직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축제위원회가 관여한 기획관련 평가 및 기획이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기획사가 작성한 자체 평가보고서는 자신의 성과평가를 자신이 한다는 모순이 있어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이는 대부분의 자체평가 보고서가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축제 집행 기관에 의한 자체 평가는 평가 대상이 되는 자기들의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해당 축제의 발전 논리, 일방적인 경제 논리에 평가기준이 종속될 우려가 있어서 객관화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였다(이현식, 2003).

또한, 일부 축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객의 축제만족도 평가는 축제조직과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소속된 기관(대부분 대학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절대적인 의미의 외부평가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많은 인천 지역축제에서 외부평가를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외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2-22〉 축제 평가 방식

(단위 : 개)

축제 평가 방식	축제 수
내부평가	31
방문객 축제만족도 외부평가	4
외부평가	0

### 제3절 인천 지역축제의 문제점

#### 1.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의 부재

##### 1) 주제 부재와 프로그램의 중복

인천의 대부분의 축제는 핵심 주제와 프로그램별 특성이 없다. 인천 지역축제 31개 축제를 범주별로 분류는 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몇몇 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민화합형축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군구 단위 축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장에서 논의된 축제범주별 결과를 보면 단순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축제아이템을 중복적으로 차용해 결국 프로그램이 중복 나열되는 결과를 가져와 유사 축제의 형태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개별 축제의 특성화 및 차별화에 실패하고, 이러한 실패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평가)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축제들이 남발되고 있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림2-1> 참조).

31개 축제 중 유사 아이템을 활용한 축제는 9개로, 이 중 인천대공원벚꽃축제(동부공원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축제가 중구 지역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표2-23> 참조).

‘월미산(월미도)’을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는 총 4개로, 대부분이 월미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운 관광 지향형 축제의 형태이며 월미평화축제(월미평화축제추진위원회)정도가 주제와 기획 방향 면에서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정도이다. 또한 ‘벚

꽃'을 축제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축제들을 살펴보면, 축제 콘셉트와는 무관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고, 주요 행사보다는 볼거리 위주의 공연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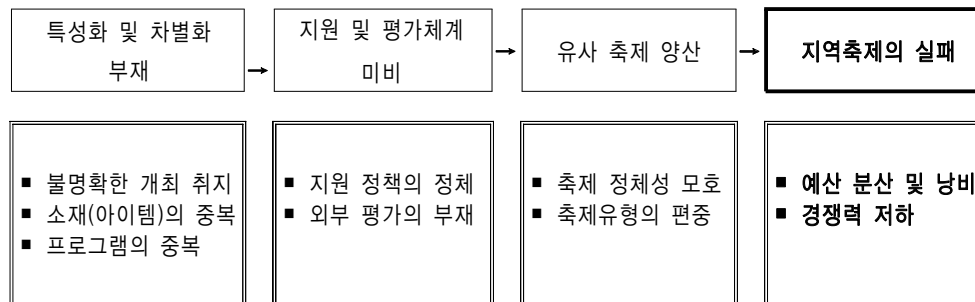
〈표2-23〉 유사 축제별 비교

소 재		축 제 명	장 소	프로그램
월미산 (월미도)	월 미 도	월미축제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한마당굿, 어린이합창단, 청소년마술공연, 중국기예단공연, 파워댄스, 치어리더댄스 공연, 연예협회노래자랑, 개막식및월미야외 문대준공식, 각종부대행사 등
		월미주말축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라틴댄스, 풍물공연, 마술공연, 예술단공연(자연의소리, 병아리, 맑은소리), 치어리더공연, 외국인공연 살사댄스, 각종부대행사
	평 화	월미평화축제	월미공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월미평화포럼, 평화사진콘테스트, 평화콘서트, 평화퀴즈풀이, 열린강연, 평화빛그림을 보아요, 전쟁관련전시, 평화책전시회, 평화책읽고캐릭터그리기, 가족다이어리만들기, 손수건속한줄시, 평화바람개비만들기
	월 미 산	아름다운 인천찾기대회	월미산 전망대지구	풍물놀이, 그림그리기, 글짓기, 사진촬영대회, 문화행사(전망대관람, 준공식, 점등식, 전망대준공축하공연) 등
벚꽃		월미공원벚꽃축제	월미공원 입구 특설무대	풍물패, 댄스공연, 시민-가족들 건전가요 부르기, 퓨전국악향연, 벚꽃한마당시민노래자랑 공연마당(초청가수 등)
		한중문화관개관기념 차이나타운벚꽃축제	한중문화관상설무대 및 공연장 자유공원 일원	중국예술단공연, 치파오/한복패션쇼, 현악협연, 취타대거리공연, 중국용춤/사자춤공연, 북한예술단공연, 한복패션쇼 등
		인천대공원벚꽃축제	인천대공원 일대	황비홍사자춤, 인천시립무용단공연, 군악대 퍼레이드, 벚꽃콘서트, 특공무술및태권도시범, 어린이인형극, 보물찾기
차이나 타운	중 국 문 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자유공원 청관거리	국제대회(제2회국제사자춤대회), 공연행사(중국예술단초청공연, 한국예술단초청공연), 체험행사(중국문화체험, 중국의상체험, 중국음식체험, 중국어학당, 중국전통차및음악체험, 사자춤및중국무술체험), 중국퍼레이드, 중국자매우호도시홍보관, 연계행사(자장면 100주년기념인천차이나타운자장면축제) 등
	자 장 면	인천 차이나타운 자장면축제	한중문화관주차장 청관거리	자장면100주년기념식및자장면이벤트, 거리 퍼포먼스, 부대행사(자장면홍보영상, 중국문화전시 등), 연계행사(제4회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인천시)의 경우, 자장면축제(중구)와 동일한 장소(차이나타운), 시기(10월), 소재(중국문화 혹은 자장면)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도는 자장면 10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두 축제가 연계행사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정한 권역 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동일한 축제아이템의 소비는 비생산적인 프로그램의 양적 비대와 질적 하락을 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축제 간 네트워킹을 통한 축제 주최 및 주관의 통합, 시기 및 프로그램의 통합에 대한 공조 시스템을 유도해 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림2-1〉 인천시 축제의 문제요인 개념도



\* 자료 : 이현식, 『인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2003)를 토대로 재구성

## 2) 축제의 지속성 및 연속성 결여

전국 지역축제 중 개최횟수가 오래된 것으로는 전라북도 남원시의 춘향제(74회), 경상남도 진주시의 개천예술제(54회),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백제문화제(50회) 등이 있다. 반면에 인천 지역축제 중 개최횟수가 10회 이상은 5개인 반면 5회 이하는 22개로 인천 전체 축제의 70%에 달한다. 인천 지역축제가 이처럼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축제의 지역성이나 역사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축제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성과 역사적 인식에 근거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급조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에게 공감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축제가 단명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우리는 인천 춤 축제, 세계범선축제 등 일회성 행사로 소멸된 축제들을 기억하고 있

다. 이들 축제가 소멸된 이유는 사전에 축제가 갖고 있는 지역성과 역사적 인식 없이 축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3) 축제유형의 편중화

인천 지역축제의 축제범주별 유형을 보면 지역특성화 축제가 18개로 전체 축제의 61%에 이르고 있는 반면, 지역특산물축제는 1개로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유사한 축제가 너무 많다는 의미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혹은 아이템이 획일화된 기획으로 개별 축제가 특성화되지 못한 채 생성된 경우라 하겠다.

인천 지역에서 편중되어 있는 지역특성화축제의 경우는 앞서의 설명과 같이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축제적 아이템을 특성화 혹은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신생 축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자칫 총체적인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템에 대한 일반화된 해석으로 축제의 본래 취지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범주별 축제가 지향해야 하는 기획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축제의 무형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할 것이다.

### 4) 축제 개최시기의 편중

인천 지역축제들의 개최시기를 보면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10월에 14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반면 여름철에는 2개 축제에 불과하며, 겨울철에 개최되는 축제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축제가 가을철에 편중 개최되면 관광객의 분산으로 인하여 개별 축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와 군구별, 그리고 지역의 생태조건에 따라 축제의 개최시기를 계절별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여름이나 겨울에 축제 개최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기후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축제의 경우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최시기의 분산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 5) 축제 기획 및 운영의 비전문성

인천 지역축제의 기획 및 운영 실태를 보면 크게 축제 주최 측에서 수행하는 경우와 선정된 대행사가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축제 주최 측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축제 조직상 축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는 기획방향을 설정하고 대행사를 선정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대행사가 수행하는 경우는 축제위원회가 없어 선정된 대행사가 기획 및 운영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해양축제, 하늘축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행사가 기획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위탁기관에서 축제를 수행하게 되면 축제의 과정이나 성과가 축적되기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축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거나 정기적으로 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축제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지역 간 축제 네트워킹 부재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립된 자치가 아니라 지자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지역의 경우 지자체간의 축제 네트워킹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상호간의 노력도 전무한 실정이라 지역축제가 군구별로 고립되어 개최되고 있다. 물론 지역축제는 지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독자적으로 거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각 군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자원의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지역축제를 군구 간에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가 주최하고 있는 월미공원벚꽃축제, 월미평화축제와 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월미관광특구문화축제, 월미축제, 월미주말축제 등의 축제 소재 및 개최장소의 유사성이 높다는 점에서 분산 개최보다는 선택과 집

중을 통해 공동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축제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전략적 축제 홍보 및 마케팅 부재

최근 축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도 이를 관람하는 관광객이 적으면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 지역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 실적 자료를 보면 일부 축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이 기존 관행 범위 내에서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홍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인터넷 홍보 실태를 보면 인천 지역축제의 약 50%에 달하는 15개 축제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지역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수준이 미미한 주된 이유는 축제예산의 절대적 부족 및 전문 인력의 부재 두 가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 홍보강화, 민·관 합동 홍보협의체 구성, 학계 및 관련기관과 연계한 홍보의 조직화 등의 체계화 홍보 및 마케팅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4. 축제 평가시스템의 미비

인천 지역축제의 평가체계를 보면 대부분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축제에서만 방문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어, 실질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축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제 개최 후에는 반드시 형식적인 자체평가보다는 축제의 기획과 구성, 운영 전반에 걸쳐 엄격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축제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병행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평가 시에는 관계공무원·관계학자·참여집단 대표자·언론인·주민대표 등 각계의 의견과 여론이 종합적으로 개진되고 수

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 번의 축제의 모습을 사진이나 녹음 및 비디오 기록 등으로 남기거나, 수집하여 축제자체의 역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축제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 평가는 축제 조직과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천 지역축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제3장 인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과제

제1절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2절 지역축제 관련 정책

제3절 대안적인 평가 체계 정립



## 제3장 인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과제

### 제1절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대략 10년이 지역축제의 급격한 양적 팽창기였다면, 이젠 지역축제의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역축제가 갖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축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 가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과 함께 지역축제의 더 이상의 파행을 제어할 올바른 방향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가야 할 것이다.

인천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인천에서 열리는 축제 전반에 대한 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분석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집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역 내 공유 및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주체’가 형성되어 있거나 주체를 형성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공유 및 합의의 과정과 주체형성의 문제는 인천에 존재하는 각 축제별/지역별로 진행되어야겠지만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보다 거시적인 접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할 내적 동력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앞서 2장에서 다룬 바 있는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인천축제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과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개략적이거나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인천 지역축제의 정체성 정립

지역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각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미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식된 지 오래되었다. 지역축제의 정체성은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지역의 고유성과 독특성에 기반을 둔 유기적 결합 내지 통합을 의미하는 ‘지역’축제로서의 정체성과 축제가 갖는 기본 속성 즉, 문화적 소통성, 일탈성(축제성), 대동성으로 다른 문화이벤트나 문화행사와 변별해주는 준거로서의 지역 ‘축제’ 정체성을 의미한다.

‘지역’축제로서의 인천 지역축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의 고유성과 독특성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성)과 유기적으로 통합 내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축제의 대부분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연적 소재(해양, 벚꽃, 월미도(월미산), 강화고인돌, 소래포구, 연안어시장, 차이나타운, 하늘 등)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분히 형식적인 차용에 머무를 뿐 축제와 지역적 소재와의 내용적 관계성은 표피적 혹은 획일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인천 지역 내/외적으로 축제의 지역적 성격을 충분히 부각시키는 데 그리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고, 축제 자체의 지역 정체성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다.<sup>18)</sup> 전국의 지역축제라는 큰 범주에서 볼 때, 인천의 지역축제 중에서 대내외적으로 ‘지역적 인지도’가 있는 축제는 2개(부평풍물축제와 강화고인돌문화축제)정도에 불과하다. 부평풍물축제는 부평지역과 풍물을 결합시켜 지역적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강화고인돌문화축제는 문화관광축제(예비축제)로 지정됨으로써 ‘강화-고인돌’로 연결되는 지역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외 다른 축제의 경우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구 단위 혹은 시 단위라는 좁은 의미의 지역적 범주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인지도 및 지역적 정

18) 이는 인천 각 시/군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기획방향 및 취지의 불명확성 혹은 일반화로 인해 주요 프로그램의 비중보다 부대행사의 비중이 많은 백화점식 프로그램 구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월미도와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 일정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만 9개로 동일한 지역에서 중복되는 소재(아이템)로 특성화를 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체성도 미약한 편이다.

‘지역’축제가 지역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역설’은 인천의 지역축제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가 갖는 공통된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각 축제의 기획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 즉, 지역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축제아이템의 개발과 적용, 축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참여/소통 시스템 마련, 지역적 소재를 중심으로 한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축제의 지역성과 고유성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화 작업 등이 요구된다.

지역 ‘축제’로서의 정체성으로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제가 축제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속성이 있다. 하지만 위의 준거 틀로 봤을 때 인천의 지역축제의 경우, 과연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총 31개의 인천 지역축제 전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몇몇 소수의 축제(부평풍물축제 등)를 제외하고는 ‘축제 정체성’면에서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축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재 지역 내 일반적인 평가인 듯하다.

점점 지역축제가 관성화, 의례화 되어가면서 본래적 의미의 ‘축제 정체성’이 거세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의 본원적 성격으로의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2. 선택과 집중<sup>19)</sup>의 원칙

‘선택과 집중’은 축제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자체와 축제연구/평가자들이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핵심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자원과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전

---

19) 선택과 집중은 축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이 아닌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접근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반적으로 제질이 취약한 우리 지역축제의 현실에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가뜩이나 정체성이 모호한 지역축제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축제에 대해 균등 지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축제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인천 대표축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던 지난 ‘인천춤축제’의 실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그럴 듯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지역 역량과 지역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졸속 기획과 준비로는 축제의 성공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향후 고려하고 있는 인천 대표축제 개발 내지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은 보다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택과 집중’ 전략은 인천 지역(축제)의 특수성과 제반 조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1시군 1대표축제 육성계획을 채택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광역/기초별 대표축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식<sup>20)</sup>,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방식, 축제범주별(문화예술/전통문화/지역특산물/지역특성화)특화 전략을 채택하는 방식,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식을 교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시군 1대표 축제는 인천시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이나, 재원의 한정과 불명확한 선정 기준에 의한 예산의 균등 지원으로 시군의 자발적인 축제 개선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다만,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인천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사례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최우선적으로

20) 현재 강원도는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도차원에서 1시군 1대표 축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부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계획은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지역축제를 강원도 대표축제로 선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촉진하는 한편, 시군 지역축제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선정기준은 1. 지역특성과 이미지의 부합 2. 대외경쟁력과 관광 상품성(특히 외국인 관광객) 3.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수입 증대를 위한 상품성 4. 숙박시설, 편의시설, 교통접근성 등 관광기반시설 5. 시군 및 주관 단체의 축제 육성 의지 등이다. 선정된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사업비 지원, 우수축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김병철, ‘축제를 위하여 :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단상에 대한 토론문’, 『인천 지역축제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2005) p.15.

인천 지역축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축제가 단순히 위로부터의 ‘육성’의 대상이 아닌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지지와 동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3. 축제별 특성화

축제가 지역 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별 축제의 특성화 전략이 부재하거나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제로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확보하려면 해당 축제가 내세우고 있는 아이템 및 주제가 다른 여타의 축제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있거나 축제 고유의 아이템과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축제의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줘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주어진 소재적 특성만으로는 축제의 특성화<sup>21)</sup>를 기대할 수 없다.

예컨대, 인천하늘축제, 인천해양축제, 월미평화/월미공원벚꽃/월미주말/월미축제, 인천중국의 날 문화/자장면/차이나타운 벚꽃 축제 등은 각각 인천 지역 고유의 축제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하늘(인천공항), 해양(바다),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을 핵심 소재 및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적 차별성과 고유성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진행되는 방식과 내용(프로그램)을 보면, 축제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축제아이템 및 주제와 연계되지 않은 겉가지 프로그램의 남발과 소재와 주제를 창의적으로 축제에 접목시키지 못한 프로그램 기획력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제의 특성화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내용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4개 범주별 속성(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과 기타 범주별(시기, 장소, 운영실태, 예산규모,

---

21) 여기서 ‘특성화’라는 것은 개별 축제의 고유한 소재적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유한 소재를 축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내지 표현하고 있는가, 혹은 그 소재가 축제 속에 녹아들어 축제를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축제소재 등) 속성을 다각적/교차적으로 고려해 각 범주별 특성화 전략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3-1〉 범주별 축제 특성화 전략

축제범주	특성화 전략
문화예술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인력 풀(pool) 확보 및 인력 간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li> <li>○ 문화예술축제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및 구축</li> <li>○ 문화예술 장르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 모색</li> </ul>
전통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 아이템의 정교화 및 구체화를 위한 연구</li> <li>○ 전통문화의 복원 및 현대적 적용 가능성 모색</li> </ul>
지역특산물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산물 판매 네트워크 구축</li> <li>○ 지역특산물에 대한 효과적 홍보 전략 모색</li> <li>○ 지역특산물의 '문화적' 상품화</li> </ul>
지역특성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모색 및 축제 간 연계성 강화</li> <li>○ 지역/축제 특성화 전략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li> </ul>

#### 4.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간의 상호 조화

축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시설, 공간 등),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휴먼웨어(축제기획/운영 인력 등)로 구성된다. 이 3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개연성이 높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근래의 경우처럼 축제의 외연이 넓어지고, 규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위의 3요소 간의 조화가 갖는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축제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3요소간의 조화가 깨질 경우라도 다른 한 요소만이라도 제대로 되어있으면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축제의 규모가 클 경우엔, 어느 한쪽의 문제로 인해 축제의 균형과 조화가 한순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간의 상호조화는 더 이상 축제의 성공을 위한 선택적 조건이 아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

## 1) 하드웨어<sup>22)</sup>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축제 주최 측은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보다는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하드웨어의 경우, 축제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가시적인 성과(물)로 고스란히 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용하기 쉽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의 경우<sup>23)</sup> 처럼 특정 지역 혹은 공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경우엔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드웨어 자체가 그 축제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지역적 특이성을 보여주는 주된 매개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분명 축제의 태동/성장기에는 안정적인 하드웨어적 인프라와 공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하드웨어 구축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내실 있는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축제의 내실 있는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 2) 소프트웨어

축제콘텐츠 혹은 프로그램으로 지칭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축제의 정체성과 내실화에 결정적인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축제에서 매우 취약한 고리이다.

현재 인천 지역축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고유의 아이템과 기획

22) 축제에서 하드웨어는 흔히 축제관련 시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축제 하드웨어를 독립된 시설물의 물리적 총합이 아니라 '관계성'에 주목해 축제를 이루고 있는 유기적 구성물로 이해한다면 축제관련 시설과 축제관련 시설(물)이 있는 공간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하드웨어를 이해할 때, 축제공간과 시설 간의 조화와 관계성이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제 하드웨어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3) 차이나타운의 경우,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자장면대축제, 차이나타운벚꽃축제(이상 3개) 등이 있으며, 월미(도)일대는 월미평화축제, 월미공원벚꽃축제, 월미주말축제, 월미축제(이상 4개)가 있다.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빈곤, 다른 축제와 차별화 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획일성, 단순 볼거리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기획/편성의 단순성에 있다고 본다. 빈곤하고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축제의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의 부재를 반영하고 있다면 볼거리 위주의 단순화된 프로그램은 지역민과 축제참여자들을 축제의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축제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 프로그램 بانک 운영 등이 필요하며, 또한 축제라는 열린 장에서 마음껏 즐기고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휴먼웨어

축제는 체계와 비체계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절묘하게 균형을 유지해나가는 문화적 유기체로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적 영역에 비해 기획과 운영의 유연성이 더 요구된다. 하지만 기획과 운영의 전반적 흐름과 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적 역량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획/운영주체의 문제는 축제의 내실화와 안정성 그리고 축제의 정체성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역문화적 가치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부분의 축제가 관의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 비체계적 개입, 주체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의 ‘주체’ 문제는 축제의 내실화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독립변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문화연대, 2003 지역축제평가보고서).

현재 인천 지역축제의 경우, 총 31개의 축제 중 19개(61%)가 축제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인력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다만, 아직 민간 전문 인력이 주도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sup>24)</sup>.

24) 축제의 관주도가 절대악(絶對惡)이 아닌 것처럼 민주도가 절대선(絶對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주체설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축제의 주체가 관

따라서 축제활성화를 위한 휴먼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 지역 문화인력을 중심으로 기획/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축제 전문 인력의 재생산을 위해 지역 내에서 기획/운영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축제 네트워크 활성화

축제가 형식화되고 내재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기획/운영주체와 참여주체간의 분리와 소통의 단절에 일정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축제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소통의 장(場)인 만큼, 기존의 닫힌 구조로 기능하던 축제시스템을 열린 구조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축제기획자/운영자/평가자간의 상호 교류와 지원, 그리고 축제활성화를 위한 공동모색이 가능한 역동적인 구조로 네트워크를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축제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축제, 축제 인력 간 상호 소통 시스템의 마련(온라인)과 축제 관련 현안 및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축제네트워크 포럼 개최(오프라인) 등이 축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

## 제2절 지역축제 관련 정책

사실 축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에는 축제 관련 정책의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즉, 축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제도의 부재는 축제의 관성화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으며, 가뜰이나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장

---

혹은 민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관/민이 축제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방식과 전문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축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축제를 활성화시켜나가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주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축제의 기획/운영 주체는 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관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연대, 『2003 지역축제평가보고서』, p.579.)

악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축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광역시의 축제지원 정책은 축제정책의 구체화와 더불어 축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1. 인천 지역축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수립

인천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인천 지역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인 중장기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축제가 지역의 사회문화적 통합, 지역문화의 보존 및 발전, 지역관광의 활성화 등 지역개발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25)</sup>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축제가 기획, 실행되어왔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역축제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중앙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에 적합한 축제 육성이나 개발에 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역축제 고유의 정체성을 정체(停滯)시키고 오히려 정체불명의 축제를 낳발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비전에 근거한 단계별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축제는 ‘지역축제 활성화’라는 대전제 속에 ‘일반 지역축제’와 ‘인천 대표축제’ 육성이라는 목표를 이원화해, 육성 방향, 지원 및 평가 체계에 대한 단계적 혹은 병행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군구의 역할 재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가령,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체 주관 행사<sup>26)</sup>는 줄이되, 근거 법률 제정, 군구 대표축제 지원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역축제 운영 기본 매뉴얼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천 지역축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운

25) 김병철, “축제를 위하여: 인천지역축제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단상”- 토론편, 『인천 지역축제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2005, pp.13~16.

26) 2006년 2월에 출범한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 주관 축제에 대해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장 19조에 따르면, ‘관광축제와 이벤트사업’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영 관리를, 각 군구에서는 자체 법 제정 및 개정, 지역축제 네트워킹 등과 같은 역할로 이원화가 가능하다.

## 2. 축제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제2장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인천광역시에는 2000년 인천 춤 축제 개최를 위해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현재 인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는 특정 축제 개최를 위한 법률적 근거로 제정되었던 만큼 그 활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 지역축제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해당 조례를 폐지,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례 내용은 인천 지역 내 축제 관련 업무를 총괄(정책/예산심의 지원, 축제평가, 축제 추진 등)하는 실행기구로서의 축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축제위원회의 자생력과 상대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차원에서의 조례의 내용적 보완 내지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구 대표축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와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군구 대표축제 지원 정책은 지원에 따른 체계적인 평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우, 축제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 인천 지역 내 단 3곳(부평구, 서구, 연수구)에 불과하다. 축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축제 관련 조례가 다른 기초단위에서도 제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3. 군구 대표축제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 내 대표 축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축제 집중 육성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 또한 최근 인천을 대표할 만한 축제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2001년부터 군구 축제(대표축제)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에 따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일괄적인 균등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원의 명분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정비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원, 심의,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원도 ‘1시군 1대표 축제 육성 계획’과 부산광역시의 사례<sup>27)</sup>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강원도의 경우는 큰 틀에서 지원의 방향과 성격이 인천과 유사하나 선정 기준이 보다 체계화되었다는 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같은 일률적인 지원이라는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점이다.<sup>28)</sup>

부산의 경우는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설치해, 군·구 축제에 대해서 지원과 연계된 평가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통해 지원에 필요한 평가 시트를 개발, 적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시트가 유사한 성격과 규모의 축제에만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개별 축제의 성격을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인천의 군구 대표축제 지원 정책은 지역 단위의 축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조례 제정, 개최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지원 및 평가 체계의 수립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7) ‘지방정부의 축제평가 - 부산광역시 사례’에 대해서는 이현식, “한국 지역축제 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시론”, 『문화도시로 가는 길』 (다인아트, 2004)에 잘 나타나 있다.

28) 2007년부터 선택과 집중의 정책 기조 아래 축제의 관광 상품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수의 축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그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김병철, 『인천 지역축제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2005, p.16.)

### 제3절 대안적인 평가 체계 정립

인천 지역축제의 활성화 혹은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대전제이자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평가 체계 정립이다. 인천 지역축제 전반을 아우르는 평가가 선행되었을 때 축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기본원칙 및 방향

##### 1) 평가(체계)의 ‘내적’ 자율성과 독립성

축제는 기본적으로 ‘기획-준비-시행-평가-기획’이라는 각기 특화된 과정이 순환적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축제를 평가한다는 것은 축제를 실제로 기획하거나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평가는 그 자체로 축제라는 전체적 흐름 속에서 상대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영역에 위치한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가(체계)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오거나 축제의 다른 영역(기획/준비/시행과정)에 비해 부수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고<sup>29)</sup>, 기획-준비-시행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기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평가의 부수성과 분절성을 넘어서 온전한 의미의 평가이기 위해서는 기획-준비-시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획(예산)이나 준비과정이 사상된 시행과정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sup>30)</sup>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단면(斷面)적 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9) 축제평가가 어느 정도 정례화되고 일반화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다. 그 전엔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 해도 극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의례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아직까지 평가가 기획-준비-시행과정과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0) 축제 시행과정 중심의 만족도 평가의 경우, 현재 축제평가(체계)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평가방식으로 주로 관광학계에서 채택하고 있다.

## 2) 평가(체계)의 ‘외적’ 자율성과 독립성

위의 평가(체계)의 ‘내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개별축제 안에서의 내재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의미한다면, ‘외적’ 자율성과 독립성은 평가자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외적 변수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의미한다.

지역축제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평가가 ‘형식적인’ 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축제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 내 역학관계로부터 평가(주체)가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주체)가 온전한 의미의 ‘외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 평가(체계)는 축제를 합리화하는 기능적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3) 일반시민/지역민 시각<sup>31)</sup>에서의 평가(체계)

지역축제의 실질적인 주체가 지역민/일반시민이라는 점에서 보면, 축제 평가의 실질적 주체 또한 당연히 일반시민/지역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민이나 축제참여시민의 시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제대로 축제의 본질-지역민과 축제와의 문화적/정서적 교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축제가 단순한 일과성 이벤트가 아닌 이상 지역이라는 문화적 영역에서 지속성을 가지면서 치러지는 축제를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지역민이나 일반시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시각에서 진행되는 축제평가(체계)가 지역축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

31) 일반시민/지역민 시각에서의 평가란 1)지역주민 혹은 관객의 입장에서 축제자체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평가, 2)시민 문화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축제가 갖는 가치와 효과에 대한 평가, 3)다양한 직간접적인 매개를 통해 축제와 시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일상 문화적 소통의 흐름을 짚어내고 읽어내는 내면적인 평가, 모두를 포괄하는 중층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 4) 지역/문화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sup>32)</sup>

지역축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제의 본래적 성격이 지역민들의 일상적 삶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내용을 문화적으로 표현해내는 자연스러운 집단행위이자, 지역민들 간의 정서적, 문화적 유대감을 공동체적으로 풀어내는 흥겨운 놀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접근과 가치가 경제적/관광적 가치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문화적 가치가 경제적/관광적 가치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 위한 선행/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축제를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배제된 하나의 규격화된/인공적인 관광 상품으로 사고하는 한 ‘축제’를 통한 일상으로부터의 즐거운 일탈의 체험과 창조적인 활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2. 평가의 체계화

현재 인천의 경우,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를 포함해 완결성을 가진 평가체계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각 축제별 자체평가<sup>33)</sup>와 더불어 부분적으로 외부 용역평가<sup>34)</sup>를 하는 곳도 있으나 전문화된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라고 보긴 어렵다.

한편, 지난 수년간 축제평가의 체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왔는데, 첫째는 문화관광부의 평가 체계<sup>35)</sup>의 벤치마킹이고, 둘째는 축제(평가)위

32)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축제평가란, 기본적으로 개별축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민의 문화적 감수성이 축제 전(全)과정 속에 얼마나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가에 대한 인식론적 분석(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이자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가치론적 접근(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을 의미한다.

33) 조사결과 인천의 모든 축제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평가라기보다는 축제결과에 대한 주관적 정리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4) 이 또한 설문조사 중심의 만족도 조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고 보긴 어렵다.

35)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평가체계는 크게 두개의 흐름(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사례<sup>36)</sup>의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 모니터링단의 활용이 그것이다.

위 세 가지 평가체계 모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도일 수 있겠지만 보다 대안적인 평가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체계)가 절대적으로 적합한 평가(체계)모형이 아닌 이상 기존의 평가(체계) 패러다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할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론적으로 인천지역의 축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유형의 평가 체계(축제평가센터와 축제모니터링단)를 제안한다. 축제평가센터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라면 축제모니터링단은 대중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평가체계이다. 이 점에서 앞의 두 가지 유형의 평가체계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이중 전략’의 일환으로 설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1) (가칭)인천축제평가센터의 설립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평가(체계)는 다른 층위와는 상대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기존의 관성화된 평가를 뛰어넘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려면 별도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화된 상설 축제평가 체계가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축제평가센터다.

축제평가센터는 평가위원들의 유기적 네트워크 집합체인 축제평가위원회 구조보다 다소 유연성은 떨어지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보다 견고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평가수행이 가능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이외에 축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각종 자료의 통합적 DB화, 축제컨설팅 등 가능한 활동내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축제평가센터라는

---

있다. 하나는 문화관광부가 자체 선정한 전문평가위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평가이고, 또 하나는 각 지자체의 방문객 만족도 조사이다. 하지만 양적/질적 평가를 두루 고려한 균형 있는 평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평가가 아닌 간이 평가여서 결과적으로 평가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대체로 많이 떨어지는 편이며, 문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체계로 인해 축제의 획일화, 균질화가 가속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36) 부산광역시는 군·구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과 연계된 평가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시 차원의 축제는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가 더 적합한 모델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평가센터의 설립이라는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축제평가센터 운영의 주체 및 운영 원칙인 만큼, 인천시의 축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상설운영기구로서 축제평가센터를 고려한다면, 독립성, 신뢰성, 전문성, 지속성, 객관성이라는 5대 기본 원칙에 의거해 이후 보다 세부적인 운영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축제모니터링단의 활성화

인천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축제모니터링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래로 부터의 평가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모니터링단의 운영 시스템이 워낙 취약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완결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시민모니터링단을 새롭게 재편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축제모니터링단이 축제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요건이 있다. 첫째, 조직운영 시스템의 재편을 포함한 모니터링단 운영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평가운영조직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적 완결성은 있어야 할 것이며, 평가 관련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sup>37)</sup>도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만들어지게 될 축제평가센터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문화자치적인 활동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 및 성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단 풀(pool)의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축제모니터링단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체계인 만큼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일정 정도의 절차(교육과정 등)를 거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축제모니터링단의 대내

---

37) 축제모니터링단 자체 연구 세미나 개최, 정기 워크숍 프로그램의 활성화,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상의 축제모니터링단 커뮤니티나 홈페이지 개설 등이 있다.

외적 이미지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단 내 구성원들의 실제 역량에 따른 층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일반 모니터와 책임모니터 등으로 구분해서 역할에 맞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축제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자치적/자율적 활동을 지향하고 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나름의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더불어 합리적인 선에서 모니터링 비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모니터링단은 워낙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합의하는 공통된 평가기준과 방법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실험적인 시도가 가능할 수 있고, 일반시민과 전문가 층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3. 평가 방법론<sup>38)</sup>

#### 1) 다면적(입체적) 평가

최근 들어 기존의 단면적 평가<sup>39)</sup>에 대한 비판의 흐름 속에서 다면적 평가에 대한 수요 및 연구<sup>40)</sup>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면적 평가는 지역축제를 1)평가주체(지역민, 방문객, 평가전문가, 축제기획운영자를 포함한 축제주최측), 2)평가지표(기획, 조직운영, 프로그램, 인프라, 이미지 및 인지도 등), 3)평가시점(기획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마무리 단계), 4)(협의의)평가방

38) 평가체계의 정립이 평가와 관련한 하드웨어적 의미의 골격을 구성하는 작업이라면 평가 방법론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의미의 골격이라 할 수 있다.

39) 단면적 평가는 평가예산과 운영상의 한계 혹은 축제에 대한 시각의 협소함에서 비롯된 평가 방식으로 축제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주체와 평가지표를 가지고 행하는 단선적인 평가 방법을 의미한다.

40) 예컨대, '축제평가체계에 대한 연구' 논문(강해상, 2004), '전남지역축제의 발전방안'(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4) 그리고 명시적으로 '다면적 평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내용상 다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축제연구자들이 많다.

법(설문조사, 인터뷰, 현장관찰조사, 자료조사 등), 5)축제를 바라보는 시각(문화적 관점, 환경/생태적 관점, 경제적 관점, 관광적 관점 등), 6)평가의 목적<sup>41)</sup>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 내지 교차시키면서 축제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다면적 평가는 축제평가 방법론과 관련해 하나의 ‘이상적’인 평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예산, 충분한 전문 인력, 그리고 정교한 평가틀과 지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축제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하려면 필히 다면적(입체적)평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축제평가를 둘러싼 제반 조건과 상황(평가예산, 인력 등)과 개별 축제가 갖는 유형적 특성(장르, 내용적 성격, 규모, 지향성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 2) 학제적 평가

기존의 축제평가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축제평가가 과도하게 경제나 관광적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축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고려해볼 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제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환경학, 경제학, 경영학, 관광학, 행정학, 교육학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 걸쳐 있다. 다시 말해 축제평가의 경우, 본질적으로 하나의 분과학문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전문 인력이 동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학제적 평가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축제평가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다양한 전문 영역 간 교류와 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도

41) 평가의 목적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 개별축제가 가지는 여러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평가, 2) 조직운영체제나 프로그램 등 한 두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3) 유형별로 축제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비교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평가, 4) 방문객 만족도처럼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 5) 전국/광역/기초 단위별로 시행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진단적 의미 혹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 등이 있다.

록 입력구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 범주별 평가

지역축제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위적 준거 틀이 당연히 요구된다. 하지만 장르/성격/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한 수많은 지역축제를 일률적이고 평면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면 각 개별축제가 가지고 있는 유형별 특수성과 개별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상위적인 평가분석틀에 포함될 수 없는 개별축제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위해서는 지역축제를 몇 가지 핵심 유형별로 분류(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하여 각 유형별로 특화된 준거 틀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3-2〉 범주별 평가방법

축제범주	평가 방법
문화예술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평가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속성 및 공간성을 고려한 평가</li> <li>■ 문화예술적 가치 및 완성도, 미학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li> </ul> </li> <li>○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민, 평가전문가, (해당 문화예술 장르의 전문비평가 그룹)</li> </ul> </li> </ul>
전통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평가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 아이템의 적절성 및 전통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li> <li>■ 전통문화의 복원 및 현대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li> </ul> </li> <li>○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민, 평가전문가, (해당 전통문화 관련 전문가 그룹)</li> </ul> </li> </ul>
지역특산물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평가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산물 판매가 갖는 지역 내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li> <li>■ 지역특산물의 ‘문화적’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li> </ul> </li> <li>○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민, 평가전문가, (관광/경제 관련 전문가 그룹)</li> </ul> </li> </ul>

지역특성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평가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화 아이템과 축제와의 관계성에 대한 가치평가</li> <li>■ 지역관광효과에 대한 평가</li> </ul> </li> <li>○ 평가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민, 평가전문가, (관광/공간/건축/조경 관련 전문가 그룹)</li> </ul> </li> </ul>
---------	--

또한 이를 통해 범주화된 각 유형별 분석과 유형들 간의(교차)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의 성격 및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각 지역축제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보다 분명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강인원, 고평석.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 축제행사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 『문화관광연구』, 한국문화관광학회, 제5권 제1호, 2003.
- 김병철. “축제를 위하여 : 인천 지역축제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단상 - 토론문 I”, 『인천 지역축제 네트워크 포럼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2005.
- 문화연대. 『2003 지역축제평가보고서』, 2003.
- 『2004 지역축제전수조사』, 2004.
- 『2002 지역축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2.
- 이현식. 『인천 지역축제 발전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3.
- “한국의 지역축제 지원 정책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권 3호, 2004.
- 인천일보. 2006/1/23 일자.





## 부 록

[부록 1] 2005 인천 지역축제 개별현황

[부록 2] 인천광역시 축제 관련 조례



## 【부록 1】 2005 인천 지역축제 개별현황

- 제3회 인천해양축제
- 제4회 인천-중국 문화의 날 축제
- 제4회 인천음식축제
- 2005 인천하늘축제
- 제4회 월미공원벚꽃축제
- 월미산과 함께하는 제4회 아름다운 인천찾기대회
- 제4회 월미평화축제
- 제10회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 인천대공원벚꽃축제
- 한중문화관 개관 기념 차이나타운벚꽃축제
- 제8회 용유을왕리해변축제
- 제5회 연안어시장축제
- 자장면 100주년 기념 인천차이나타운자장면대축제
- 제14회 구민의 날 경축 제3회 월미관광특구문화축제
- 제15회 월미축제
-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월미주말축제
- 제16회 화도진 축제
- 2005 주안미디어문화축제(JuMF 2005)
-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꿈꾸는 제1회 학산젊은연극제
- 2005 능허대축제
- 제5회 인천소래포구축제
- 2005 부평풍물축제
- The Old Music Festival
- 제11회 구민의 날 기념 제3회 계양산축제
- 2005 랑랑축제
- 제10회 서곶문화예술제
- 2005 강화고인돌문화축제
- 2005 삼랑성역사문화축제
- 제3회 고려산진달래축제
- 제3회 강화도선원사논두렁연꽃축제
- 제2회 강화새우젓축제

## 제3회 인천해양축제

개최횟수/주제	제3회 - 바다와 함께!, 인천과 함께
일시/기간/주기	2005. 8. 4 ~ 8. 6/총 3일간/매년
장 소	을왕동 왕산 해수욕장 일원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 주관: 인천중구문화원, 기호일보
후원	문화관광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중구,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Channel(V) Korea TV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 해양항만도시 인천의 상징인 바다를 소재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 해양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3억원(시비: 3억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전행사 - 해경관현악단 연주, 하쇼하벨리댄스공연, 해상퍼레이드</li> <li>○ 기념식 - 축사 및 선언식</li> <li>○ 식후행사 - 경축음악회, 해상불꽃축제</li> </ul> </li> <li>△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 Special 공연</li> </ul> </li> <li>△ 체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상투어, 갯벌체험, 해양레포츠체험, 무인도체험, 공연관람, 선상낚시</li> </ul> </li> <li>△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항 갑문 견학</li> </ul> </li> <li>△ 기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페인팅, 바디 페인팅, 레인보우 타투</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a href="http://www.oceanfestival.net">www.oceanfestival.net</a> )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개최횟수	제4회
일시/기간/주기	2005. 10. 7 ~ 10. 9/총 3일간/매년
장 소	자유공원, 청관거리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중구문화원, (사)한국중화문화예술협회
후원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주한중국대사관,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0년 역사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중 우호협력과 인천의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국내 유일의 중국문화관광축제로 육성</li> <li>° 차이나타운을 위시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 도시 인천의 이미지 제고</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3억원(시비: 3억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li> </ul> </li> <li>△ 본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대회 - 제2회 국제용 춤사자 춤대회</li> <li>° 공연행사 - 중국예술단 초청공연, 한국예술단 초청공연</li> <li>° 체험행사 - 중국공예체험, 중국의상체험, 중국음식체험, 중국어학당, 중국 전통차 및 음악 체험, 사자춤 및 중국 무술(태극권)체험</li> <li>° 퍼레이드 - 중국 퍼레이드</li> </ul> </li> <li>△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 중국인 장기자랑대회(ICN공개방송), 인천시홍보관, 중국자매우호 도시 홍보관, 중국전통물산전</li> </ul> </li> <li>△ 연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문화관전시행사, 자장면 100주년 기념행사</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www.inchinaday.com)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 사전교육 및 면접 실시</li> <li>° 자장면 100주년 기념행사, 한중문화관 연계행사</li> </ul>

## 제4회 인천음식축제

개최횟수	제4회
일시/기간/주기	2005. 8. 31 ~ 9. 4/총 5일간/매년
장 소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한국음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 대한영양사협회인천광역시 영양사회, 대한제과협회인천광역시지회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음식문화 개 선 및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2억6천5백만원(식품진흥기금)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 공식행사 ° 개막식 △ 본 행사 ° 대표음식전시 및 먹거리 운영, 영양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제과 제 빵 전시(체험)관 운영, 지역 식품 제조 가공업체 생산품 기획 전시, 홍보관 운영 △ 문화예술공연 행사 ° 무형문화재공연: 인천근해갯가노래 뱃노래, 범패작법무, 강화용두레 질노래 ° 인천 시민노래자랑, 풍물길놀이, 댄스 캠페니 공연, 퓨전난타 콘서 트,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베네스트오케스트라, 조용필 밴드공연, 인천 시민 만만세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위생정책과에서 담당 °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와 동시 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

## 2005 인천하늘축제

개최횟수/주제	제2회 - I Love Sky, My Buddy Sky
일시/기간/주기	2005. 9. 23~9. 25/총 3일간/매년
장 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앞 잔디마당, 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
주최/주관	주최 :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공사/주관 : 부평문화원
후원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한국항공진흥협회, 공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물류도시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널리 알리고, 인천의 정체성 부각과 국제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li> <li>◦ 세계적 문화행사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및 '하늘'관련 테마 발굴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자료로 활용</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6억원(시비: 6억원 - 인천시: 3억원/인천항만공사: 3억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p>△ I Love Sky (내사랑 하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 - 제2회 하늘축제개막식, 하늘음악회</li> <li>◦ 대회행사 - 제2회 하늘사랑 어린이사생대회, 제2회 물로켓 발사대회, 제2회 전국모형항공기대회</li> <li>◦ 공연행사 - World Music Concert, Sky Fringe Festival, Love Sky Festival</li> <li>◦ 시연행사 - 연날리기, RC 비행기</li> </ul> <p>△ My Buddy, Sky(하늘은 내친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행사 - 열기구, 로켓바운스, 사이버인스페이스, 3D 입체영화관, 비행기시물레이션, 스카이번지, 과학체험교실, 하늘공예체험교실</li> <li>◦ 전시행사 - 모형항공기전시, 인공위성사진전시, UFO자료전시, 하늘과 사람 사진 전시, 하늘과 사람 사진 갤러리</li> <li>◦ 부대행사 - Sky Shop</li> </ul> <p>△ Korea Art Space (아름다운 공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 여객 터미널 밀레니엄 홀 전통문화공연, 수문장교대식 등</li> </ul> <p>△ Sky World (세계와 함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공항 관계자 우호교류 협력 회의</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a href="http://www.incheonskyfestival.com">www.incheonskyfestival.com</a> )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지원과에서 담당

## 제4회 월미공원벚꽃축제

개최횟수	제4회
일시/기간/주기	2005. 4. 24/총 1일간/매년
장 소	월미공원 입구 특설무대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주관: 이벤트사
기획/운영주체	광역시치단체 중심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년 만에 귀환한 월미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인천 시민들의 향토 사랑과 애향심 고취</li> <li>° 자연의 소중함과 음악 및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는 건전한 문화행사</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1천 5백만원(시비: 1천5백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물패, 댄스공연</li> </ul> </li> <li>△ 본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석환과 시민 가족들의 건전가요 부르기, 황태음의 퓨전국악 향연, 켜저싸이즈 공연, 자연의 소리, 벚꽃 한마당 시민노래자랑, 초청가수공연,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월미산과 함께하는 제4회 아름다운인천찾기대회

개최횟수	제4회
일시/기간/주기	2005. 10. 29/총 1일간/매년
장 소	월미산 전망대지구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주관: 기호일보
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중구청, 유네스코인천시협회, 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 남부·북부·동부·강화교육청
기획/운영주체	광역시치단체 중심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년 만에 귀환한 월미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인천 시민들의 향토 사랑과 애향심 고취</li> <li>° 자연의 소중함과 음악 및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는 건전한 문화행사</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4천5백만원(시비: 4천5백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물놀이</li> </ul> </li> <li>△ 경연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그리기, 글짓기, 사진촬영대회</li> </ul> </li> <li>△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망대 관람, 준공식, 점등식, 전망대 준공 축하공연</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제4회 월미평화축제

개최횟수/주제	제4회 - 전쟁과 예술
일시/기간/주기	2005. 10. 7 ~ 10. 9/총3일간/매년
장 소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월미공원, 삶과 나눔이 있는 터 '해시'
주최/주관	주최: 월미평화축제추진위원회/주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후원	인천광역시
기획/운영주체	민간 중심형
기획취지	°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월미도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 전달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4천 5백만원(시비: 4천 5백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p>△ 주요 행사</p> <p>° 월미평화포럼 - '전쟁과 예술 : 반전평화를 향한 외침'</p> <p>° 평화사진콘테스트</p> <p>° 평화콘서트</p> <p>° 어린이와 함께하는 평화기행 - 평화퀴즈풀이, 열린 강연, 평화 빛그림을 보아요, 인천 앞바다 전쟁관련 자료 전시</p> <p>°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한마당 - 평화책 전시회, 평화책 읽고 캐릭터 그리기, 가족 다이어리 만들기, 손수건 속 한 줄 시, 평화바람 바람개비 만들기</p>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www.wolmipf.com)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제10회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개최횟수	제10회
일시/기간/주기	2005. 10. 9 ~ 10. 12/총4일간/매년
장 소	학산소극장, 인하대학교 본관 공연장, 시연센소극장 등
주최/주관	주최 : 클라운마임협회, 소극장 돌체, 극단마임 주관 : 인천클라운마임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재)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남구청
협찬	인하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기획/운영주체	민간 중심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각국의 마임, 클라운마임, 너버벌 아티스트 초청, 공연을 통한 문화교류</li> <li>° 10주년을 기념해 새롭고 다양하고 독특한 신체언어로 인천지역 대학과 연계해 민간예술 축제의 전환점으로 자리매김 시도</li> </ul>
조례제정여부	°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1억4천3백9십만원(시비:1천6백만원/자부담:6천7백9십만원/기타:6천만원)
축제범주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 공연 ° 전야제, 어린이를 위한 공연, 가족을 위한 공연, 마니아를 위한 공연, 체험 워크숍 진행 °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인도, 일본, 한국 등 마임이스트들이 장소 및 주제별로 공연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www.clownmime.co.kr)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인천대공원벚꽃축제

개최횟수/주제	제10회
일시/기간/주기	2005. 4. 16 ~ 4. 24/총9일간/매년
장 소	인천대공원 일대
주최/주관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
기획/운영주체	광역자치단체 중심형
기획취지	° 인천 유일의 자연녹지공원을 활용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행사 제공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2천만원(시비: 2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 주요행사 ° 황비홍 사자춤,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군악대 퍼레이드, 벚꽃 콘서트, 특공무술 및 태권도 시범, 마술쇼, 어린이 인형극, 보물찾기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한중문화관 개관 기념 차이나타운벚꽃축제

개최횟수/주제	제8회
일시/기간/주기	2005. 4. 16 ~ 4. 17/총2일간/매년
장 소	한중문화관 상설무대 및 4층 공연장, 자유공원일원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중구/주관: 중구문화원/이벤트 기획사 아트뱅크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 지명도 높은 자유공원 일대의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춘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8천만원(구비: 8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p>△ 주요행사</p> <p>◦ 중국 예술단 공연과 치파오·한복패션쇼, 밸리댄스, 현악 협연, 쿼타대거리 공연, 중국 용춤·사자춤 공연, 북한 예술단 공연(백두한라예술단), 유진박의 전자바이올린 연주, 탈춤, ICN 노래자랑, 한복패션쇼, 불꽃놀이, 음악줄넘기공연</p> <p>△ 부대행사</p> <p>◦ 우리동네 맛 자랑코너, 페이스 페인팅 등</p>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 '한·중 문화관' 개관을 맞아 행사 연계

## 제8회 용유을왕리해변축제

개최횟수	제8회
일시/기간/주기	2005. 7. 30 ~ 7. 31/총2일간/매년
장 소	을왕리 해수욕장 해변무대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중구/주관: 을왕리 해수욕장변영회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를 통한 전국단위 관광 명소로서의 자리매김</li> <li>°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문화예술축제 발전에 기여</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3천만원(구비: 3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li> <li>° 불꽃놀이</li> <li>△ 공연 행사</li> <li>° 식전-후 축하공연, 노래자랑, 락콘서트, 중국예술단공연, 여름패션쇼</li> <li>△ 참여행사</li> <li>° 중구씨름왕 선발대회, 모래성 쌓기, 가족릴레이수영, 미니족구대회</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제5회 연안어시장축제

개최횟수	제5회
일시/기간/주기	2005. 10. 8 ~ 10. 9/총2일간/매년
장 소	연안어시장 입구 특설 무대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중구 주관: 연안어시장 축제추진위원회, (사)서해풍어제보존회
후원	경인방송, 중부경찰서, (재)인천문화재단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 부두의 지역축제를 연안부두의 상품으로 재개발하여 검증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 주민의 단합과 자긍심 고취</li> <li>°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연안어시장의 장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li> <li>° 연안부두 및 연안어시장을 홍보, 어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1억9백7십2만5천원(구비: 2천만원/자부담: 8천9백7십2만5천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 공식행사 ° 제5회 연안어시장축제 기념식 △ 세부행사 ° 세경돌이, 서해안풍어제, TV 공개방송(리허설), 해외공연, i-net TV 공개 녹화 방송, 참여마당, 음악줄넘기, 서도민요, 은을탈춤, 출동노래방, 한울 소리 해외공연, 축하공연, 부대행사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자장면 100주년 기념 인천차이나타운자장면대축제

개최횟수	제4회
일시/기간/주기	2005. 10. 7 ~ 10. 9/총3일간/매년
장 소	한중문화관 주차장, 차이나타운 내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중구/주관: (주)카오스 프로덕션
후원	인천광역시, 주한중국대사관, MBC, 대한제분, 제일제당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제 행사를 통한 한중문화예술 교류의 장,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관광 명소 자리매김</li> <li>◦ 최초의 자장면 발상지, 인천차이나타운의 대외적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차이나타운 활성화에 이바지</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3천만원(구비: 3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장면 100주년 기념식 및 자장면 이벤트(수타시연, 용사퍼레이드)</li> </ul> </li> <li>△ 본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연행사, 자장면이벤트, 거리퍼포먼스</li> </ul> </li> <li>△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장면 홍보영상, 중국문화전시, 자장면할인행사, 벼룩시장, 중국문화체험 행사</li> </ul> </li> <li>△ 연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주년 기념으로 인천 시 주최 제4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 축제와 연계 진행</li> </ul>



## 제14회 구민의 날 경축 제3회 월미관광특구문화축제

개최횟수	제3회
일시/기간/주기	2005. 10. 1 ~ 10. 3/총3일간/매년
장 소	제물량길(중부경찰서앞도로)
주최/주관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운영주체	광역자치단체 중심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구만의 테마 축제 추진을 통해 관광명소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li> <li>- 근대사를 조명하는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 추진</li> <li>-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하는 공연 창출</li> <li>- 지역 내 문화예술인 향연을 통해 대내외로 알리는 기회 마련</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1억원 (구바: 5천만원/시바: 5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회 구민의 날 기념식</li> </ul> </li> <li>△ 식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 퍼레이드(카퍼레이드)</li> </ul> </li> <li>△ 본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행사 - 웰빙댄스페스티벌, 한국전통공연, 세계민속공연, 언더들의 반란 공연, 천군단 공연, 고수들의 무예, 락페스티벌, 중국예술단초청 공연, 공개방송</li> <li>° 이벤트 마당 - 페이스페인팅 칼라믹스, 맥주빨리마시기</li> <li>° 전시/먹거리 마당 - 개화기 엽서전시회, 중국내화공예시연 및 전시, 중국예술인협회작품전시회, 먹거리마당, 홍보관 및 물류전</li> <li>° 구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 리틀엔젤스예술단공연, 한일 전통예술단 공연</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제15회 월미축제

개최횟수	제15회
일시/기간/주기	2005. 10. 14 ~ 10. 16/총3일간/매년
장 소	월미도 문화의 거리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중구/주관: 월미축제추진위원회, 인천중구문화원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의 날 경축 및 지역 특성을 부각시킨 휴양지로서의 자리매김</li> <li>° 월미축제를 통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및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활성화</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5천5만원(구비: 3천만원/자부담: 2천만5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p>△ 월미도야외무대 및 주변무대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마당 굿(전야제), 어린이합창단, 청소년마술공연, 중국기예단 공연, 파워댄스 평화방송 월미축제 특별공개방송, 불꽃놀이, 댄스빅뱅, 연예협회노래자랑, 치어리더댄스공연, 개막식 및 월미 야외무대준공식, 퓨전음악공연, 월미건강달리기 대회, 밸리댄스 등</li> </ul> <p>△ 부대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미축제 페이스페인팅, 거리의 화가, 로드매직쇼, 로드퍼포먼스, 키다리&amp; 매직빠에로, 환경전시회, 바다사진전시회, 사회단체전시 및 캠페인</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월미주말축제

개최횟수	제1회
일시/기간/주기	2005. 10. 22 ~ 11. 6/총6일간(주말)/매년
장 소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 무대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중구/주관: 인천중구문화원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 제공으로 관광휴양지로 자리매김</li> <li>◦ 주말 축제를 통한 월미도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 경제 및 월미관광특구 활성화</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2천만원(구비: 2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 주 행사 ◦ 라틴댄스, 풍물공연, 마술공연, 댄스배틀, 포크공연, 자연의 소리예술단, 병아리예술단, 맑은소리예술단, 치어리더공연, 외국인공연단 살사댄스 △ 부대행사 ◦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막대풍선배포, 매직 뽀에로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제16회 화도진축제

개최횟수/주제	제16회 - 구민이 화합되는 축제
일시/기간/주기	2005. 5. 6 ~ 5. 8, 5. 14, 5. 21/총6일간/매년
장 소	화도진 공원, 수문통 복개도로, 송현근린공원
주최/주관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동구
기획/운영주체	기초자치단체 중심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문화의 보존, 계승 및 창조적 발전</li> <li>° 구민이 화합되는 축제</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1억2천만원(시비: 5천만원/구비: 7천만원)
축제범주	전통문화축제
프로그램	<p>△ 본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영대장 화도진 축성 행렬</li> <li>◦ 폭포광장</li> <li>◦ 동헌마당 - 풍물단, 취타대, 태권, 줄타기, 전통무예, 품바, 강령탈춤</li> <li>◦ 내사큰마당 - 왕장기 대회, 민속놀이,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어버이날 카네이션 증정</li> <li>◦ 내사앞마당 - 감옥체험, 형틀체험, 조선시대병장기체험, 어영대장과 사진 찍기</li> <li>◦ 사랑채/야포 전시장 - 한지공예제작, 연,제기만들기, 무료가훈씨주기, 기념품 연 등 전시판매, 동양화 그려주기, 활쏘기대회, 전통무예 교습</li> <li>◦ 화도진 공원 상설 행사-각동 특색 음식전 및 인천 근현대사 사진전</li> </ul> <p>△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p> <p>△ 구민의 날 기념 경축 음악회 -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축하공연, 불꽃놀이</p>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결과보고

## 2005 주안미디어문화축제(JuMF 2005)

개최횟수/주제	제2회 - 사람 속에서 숨쉬다
일시/기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 10. 10 ~ 11. 11 온라인 Pre-Festival/33일</li> <li>° 11. 4 ~ 11. 11 주 행사 및 미디어 아트 전시/8일/매년</li> </ul>
장 소	주안역사, 남구 청소년 미디어 문화센터, 맥나인 극장, 옛 시민회관 셉터, 주안로 지하상가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남구/주관: 주안미디어문화축제집행위원회,인하대
후원	문화관광부, 인천광역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프랑스대사관, (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학산문화원, 인천일보, 경인일보, 월간 디자인 네트, 주안역 지하상가, 2030 거리상가
협 찬	맥나인시네마, 스페이스빔, (주)팜클, (주)세스코, (주)크리오, 네오룩 닷컴,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이글루스, 마루
기획/운영주체	지자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미디어문화 재발견을 통한 지역 사회, 예술, 교육적 성찰 기회 제공</li> <li>° 남구 주안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및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고양</li> <li>° 지역민에게 새로운 여가 향유 즐거움 제공</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2억2천5백만원(시비: 5천만원/구비: 1억7천5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아트 전시 - 본 전시, 참여 프로그램, 블로그 전시</li> <li>。 예술영화제 - 베스트 셀렉션 상영 (10개 프로그램/60여개 작품) 초대 작가 워크숍 (컨퍼런스+워크숍+토론 - 총 10회)</li> <li>。 국제학술제 - &lt;미디어스케이프3경&gt; 실험영화, 블로그, 미디어센터</li> <li>° 야외이벤트</li> </ul>
홈페이지	지체 홈페이지 운영(www.jumf.or.kr)
평가시스템	자체결과보고/외부평가(인하대)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적 예술을 토대로 한 디지털 미디어 문화축제</li> <li>。 디지털 미디어 문화를 특화로 한 도심 재생 기반 구축</li> </ul>

## 청소년의 성장과 행복을 꿈꾸는 제1회 학산젊은연극제

개최횟수	제1회
일시/기간/주기	2005. 9. 1 ~ 9. 6/총6일간/매년
장 소	학산소극장, 시연센 소극장, 인하대 5남 소강당 등
주최/주관	주최/주관: 학산젊은연극제준비위원회
후원	인천광역시 남구청, 남구학산문화원, (재)인천문화재단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창작 혹은 생산 활동의 산실</li> <li>° 초청작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연극제와는 다른 형태의 연극제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삶이 담긴 연극 축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함.</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9천4백만원(시비: 2천만원/구비: 5천만원/자부담: 2천4백만원)
축제범주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p>△ 본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지원작품(1) - ‘해연’</li> <li>° 초청작품(2) - ‘춘행전을 연습하는 여자들’, ‘휴먼코메디’</li> <li>° 청소년제작지원공연(2) - ‘닭과 아이들’, ‘무의도 기행’</li> <li>° 거리난장 - 퓨전국악밴드, 풍물굿패 공연</li> <li>° 학술심포지엄 - 함세덕, 그의 문학과 이데올로기</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www.hsplay.net)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2005 능허대축제

개최횟수	제2회
일시/기간/주기	2005. 9. 10 ~ 9. 11/ 총2일간/매년
장 소	능허대공원, 옥련딴터, 옥련동 194-51번지 일원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관: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관광부, 인천광역시,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인천지회, 한국예술경영협회, 연수문화원,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인천광역시 연합회, 연수구예술인연합회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과거의 연수구의 역사적 의미 고찰</li> <li>° 현재 연수구의 문화 예술 분야 발전을 도모</li> <li>° 국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있음(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예 산	1억9천만원(시비: 5천만원/구비: 1억 4천만원)
축제범주	전통문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울마당(무대행사)-백제왕선발대회, 전야제, 백제시대 사신행렬 재현 퍼레이드 등</li> <li>° 백제마당(체험프로그램)-민속기네스, 백제왕과 독대하다, 씨름왕 선발대회, 마라톤걷기대회, 동대항 여자단체전 씨름대회</li> <li>° 나눔마당(참여프로그램)- 평생학습주민자치한마당, 능허대사생대회, 저갓거리</li> <li>° 부대행사-우리센터경연대회, 연수구국악협회공연, 찜뽕싸이즈, 풍물패/댄스팀, 퓨전오케스트라, 스트롱아프리카, 폐막식, 폐막공연</li> <li>° 먹거리장터</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www.능허대.com)
평가시스템	자체 평가 보고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 운영</li> <li>° 모니터링운영을 통한 결과보고서 및 백서 발간</li> <li>° 축제 기간 설문 조사 실시, 평가보고서에 반영</li> </ul>

## 제5회 인천소래포구축제

개최횟수/주제	제5회 -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
일시/기간/주기	2005. 10. 5 ~ 10. 8/총4일간/매년
장 소	소래포구일원(메인무대-대영주차장)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남동구/주관: 인천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 인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관광수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li> <li>° 소래포구의 관광 이미지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문화관광축제로의 도약 전기 마련</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2억4천3백만원 (시비: 5천만원/구비: 1억원/자부담: 5천3백만원/기타: 4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거리페레이드, 개막식, 개막축하공연, 폐막식, 폐막축하공연, 풍어제, 불꽃놀이</li> </ul> </li> <li>△ 무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 전국노래자랑, 락동아리페스티벌, 남동화합한마당, 자일엄노래공연, 아쥘마프린지축제, 남동구생활체육발표회, 어린이잔치한마당,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소래포구아쥘마선발대회, 크레용밴드공연</li> </ul> </li> <li>△ 참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깜짝 경매 및 수산물 이벤트, 추억의 소래장터</li> </ul> </li> <li>△ 부대행사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래포구 사진촬영대회, 갈대축제, 망둥어낚시대회, 소래길 참여전시회, 구민글짓기대회, 페이스페인팅 및 네일아트, 캐릭터풍선나눠주기</li> </ul> </li> <li>△ 상설행사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래먹거리장터, 자매도시특산품판매및전시, 소래포구전역할인행사</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www.soraefestival.com)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2005 부평풍물축제

개최횟수/주제	제9회 - 力 + 動 Dynamic Bupyeong 응비하는 부평
일시/기간/주기	2005. 5. 25. ~ 5. 29/총5일간/매년
장 소	부평로, 신트리 공원 외 부평구 일원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부평구/주관: 부평구축제위원회
후원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및 문화원, 주한싱가포르대사관, 주한몽골대사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구의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국악협회, (사)한국농악보존회, 경향신문사, 세계일보사, 경인일보사, 인천일보사, 중부일보사, 기호일보사, (주)경기매일, 수도권일보사, 부평신문사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li> <li>◦ 전통문화의 보존 및 현대적 계승, 발전을 통한 지역특화 전통예술축제 정착</li> <li>◦ 타 축제와의 명확한 차별화를 통한 주민 참여 위주 축제</li> <li>◦ 풍요로운 문화도시 건설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있음(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예 산	4억5천만원(시비: 7천만원/구비: 3억8천만원)
축제범주	전통문화축제
주제 및 주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 메인 축하공연</li> </ul> </li> <li>△ 마당 무대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물마당, 놀이마당, 참여마당, 대동마당, 예술무대</li> </ul> </li> <li>△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사랑축제, 전통문화 체험마당, 제3회 부평골민속그네뛰기대회, 제8회 부평골왕장기대회, 사진공모전, 씨름왕선발대회,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 NET-WORK 자매결연도시 전시행사, 부평구 지역정보센터개관기념 게임대회</li> </ul> </li> <li>△ 연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 TV 특집 쇼! 뮤직뱅크 공개방송, 기획 초대전, 우표 전시회, ‘아름다운 거절’ 금연- 절주 퍼포먼스</li> </ul> </li> </ul>

	<p>△ 경연대회</p> <p>◦ 제6회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제8회 인천학생풍물경연대회, 제5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제6회 부평구 동풍물경연대회</p>
<b>홈페이지</b>	자체 홈페이지 운영 (www.bpf.or.kr)
<b>평가시스템</b>	자체 결과 보고
<b>기타 특기사항</b>	<p>◦ 준비기간 : 2004. 8. ~ 2005. 5 (10개월)</p> <p>◦ 자원 봉사 활용을 통한 지역민의 참여 유도</p> <p>◦ 자원봉사 운영관리센터 활용을 통한 원활한 진행 유도</p> <p>(총 264명 - 운영관리센터 6명 포함/자생 단체 봉사자는 별도)</p>

## The Old Music Festival

개최횟수/주제	제2회 - 아름다운 추억! 그리움...열정! 그리고 감동!
일시/기간/주기	2005. 9. 30. ~ 10. 1/총2일간/매년
장 소	부평공원 특설무대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부평구/주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원	부평구축제위원회
기획/운영주체	지자체/축제위원회(부평구축제위원회)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회 부평구민의 날 경축 문화 행사 일환</li> <li>° 부평풍물대축제와 차별화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구민의 다양한 문화 접촉 기회 확대</li> <li>° 지역적 특성(부평미군부대 및 대중음악)에 기인한 문화부평 이미지 제고 계기를 마련</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있음(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예 산	7천5백만원(구비: 7천5백만원)
축제범주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 주요행사 ° 제12회 부평구민의 날 기념식, The Old Music Festival(추억으로 가는 여행 “Folk & Jazz 페스티벌”, 그때 그 시절 환희의 낭만여행 “타오르는 열정의 Rock 페스티벌”)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 부평구 연간 행사 ° 신년음악회(1월), 정월대보름달맞이(2월), 부평풍물대축제(6월), 한여름밤의 드림콘서트(8월), The Old Music Festival(10월) ※ 축제 특성 ° 부평풍물대축제와의 차별화된 개최 의도 ° 부평지역 출신 연예인 초청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유도 ° 통상적인 구민의 날 콘셉트에서 탈피한 기획 축제 지향

## 제11회 구민의 날 기념 제3회 계양산축제

개최횟수/주제	제3회
일시/기간/주기	2005. 9. 9. 10. 4, 10. 14 ~ 10. 15/총4일간/매년
장 소	야외공연장, 경인교육대학교, 부평초등학교, 계양구청 강당 외
주최/주관	주최: 계양산 축제추진위원회 주관: 계양구, 계양문화원, 계양구미술협회, 계양구립합창단, 시설관리공단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혼합형
기획취지	° 구민의 날을 경축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 ° 계양구의 역사적 사실 재연을 통한 구민의 애향심과 문화적 자긍심고취
조례 제정 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1억2천만원(시비: 5천만원/구비: 7천만원)
축제범주	전통문화축제
프로그램	△ 주요행사(4개) °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연, 정조대왕 및 효의왕후 선발대회, 젊음의 음악 축제, 구민노래자랑대회 △ 기타 부대행사(7개) ° 제6회 계양구 청소년 가요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문화 체험마당, 숲 속의 작은 음악회, 구립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한일우정의 해 기념 모 노 드라마 공연 “가라오케맨”, 인형극(뮤지컬) ※ 기타부대행사의 경우, 각 주관기관(단체)에서 행사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 프로그램별 예산 배정 -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연(6천2백만원) - 젊음의 음악축제(4천만원) - 구민노래자랑대회(1천8백만원) ※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시스템 - ‘정조대왕 및 효의왕후 선발대회’

## 2005 랑랑축제

개최횟수/주제	제3회-너랑! 나랑! 우리랑! 랑랑!
일시/기간/주기	2005. 10. 9/총1일간/매년
장 소	서구 가좌동 원적산(건지사거리~진주사거리)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서구/주관: 인천광역시서구축제위원회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서구 도시 이미지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li> <li>◦ 행사 개최를 통한 서구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있음(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예 산	1억원(시비: 5천만원/구비: 5천만원)
축제범주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	<p>△ 주요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댄스 동아리 경연대회, 랑랑춤 배우기, 스포츠 댄스와 에어로빅, 풍물 참가팀거리 퍼레이드, 해외 참가팀과 외국인근로자 춤공연</li> </ul> <p>△ 부대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이스페인팅, 패션페인팅, 알공예, 목공예, 갯별간접체험, 떡매치기,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 나눔장터 등</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a href="http://www.rangrang.or.kr">www.rangrang.or.kr</a> )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춤 경연 대회 성격</li> <li>서울과 경기지역 15개 팀과 인천지역 32개 팀, 해외 공연단 3팀 등 총 60개 팀 참가</li> <li>◦ 2003년 3월 서구축제위원회 구성,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행사 및 기획은 축제위원회 운영회의를 통한 결정 및 사업 추진</li> </ul>

## 제10회 서곶문화예술제

개최횟수	제10회
일시/기간/주기	2005. 9. 3 ~ 9. 11/총9일간/매년
장 소	서구문화회관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서구 주관: 서구문화원, 서구문화예술인회, 미술협회 인천지회 외 7개 예술단체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혼합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와 구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서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저변 확대</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있음(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예 산	1억4천만원(구비: 1억 4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 주요 행사 ◦ 피아노경연대회, 마당놀이공연, 서예·미술작품 전시회, 연극·무용공연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2005 강화고인돌문화축제

개최횟수/주제	제8회 - 천혜의 자연! 유구한 역사! 그리고 강화도
일시/기간/주기	2005. 9. 30 ~ 10. 3/총4일간/매년
장 소	고인돌 광장, 강화읍 일원, 마니산
주최/주관	주최/주관: 강화고인돌문화축제추진위원회
기획/운영주체	민간 중심형 축제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축제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 도모</li> <li>°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을 축제를 통해 재조명, 문화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수준 높은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대내외 홍보</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3억8천만원(시비: 6천만원/군비: 3억2천만원)
축제범주	전통문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시테마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성체험고인돌아카데미-간석기제작교실, 석기사용실, 뼈도구제작교실, 장신구제작실, 토기제작교실, 움집제작교실, 선사시대만찬교실</li> <li>° 고인돌탐방코스, 고인돌축조재현</li> </ul> </li> <li>△ 무대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 '과거와 오늘의 만남', 폐막식 '강화와 미래' i-FM 라디오 공개방송(개막축하공연), 지역동아리공연, 시낭송회, 전통다도시연, 북한문화공연</li> </ul> </li> <li>△ 부대/상설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 Ganghwa 농/특산물 큰잔치, 풍년기원 '용두레질공연', 꽃창굿공연, 우리동네먹거리잔치, 강화영상화사진전, 야생화전시전, 강화문화체험전(전통다도시연, 왕골공예체험및전시, 가훈씨주기, 고려청자만들기) 강화군지역상품코너, 강화고인돌문화투어</li> </ul> </li> <li>△ 참여/경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인돌노래타래(예선/본선), 영페스티벌, 강화고인돌장학퀴즈, 강화군민예능대전, 강화순무요리대회</li> </ul> </li> <li>△ 장외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문화퍼레이드, 마니산 개천대제, 강화문화투어행사, 성돌이 행사</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www.ghgoindol.com)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 강화고인돌문화축제집행위원회 프로그램 및 전문문화예술단체 검토, 선정

## 2005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개최횟수/주제	제5회 - 생명의 빛, 나눔의 기쁨
일시/기간/주기	2005. 10. 28 ~ 10. 30/총3일간/매년
장 소	강화 정족산 전등사
주최/주관	주최: 삼랑성역사문화축제조직위원회/주관: 강화전등사
후원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대한불교조계종, 아름다운 가게, 새얼문화재단,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일과 여가 문화연구회(사)
협찬	국민은행, 포스코, 홈플러스, 명설차(주)
기획/운영주체	민간 중심형 축제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랑성의 역사적 중요성 재조명 및 전국의 성(城) 문화 주도</li> <li>° 외규장각 도서반환의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역사문화 축제</li> <li>° 강화도의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켜 주민의 생활적 가치 제고</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7천5백만원(군비: 2천5백만원/자부담: 5천만원)
축제범주	전통문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불 화가 방혜자 그림전 ‘빛의 숨결’</li> <li>△ 차 나눔터</li> <li>△ 연차회</li> <li>△ 명상음악의 향기 - 내 안의 빛-소리 여행</li> <li>△ 불교 전통의식의 백미 육법공양</li> <li>△ 이주노동자와 함께 - ‘자비로운 하루 밥상 공동체’</li> <li>△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무료 한방 진료 - ‘자비의 손길 나눔터’</li> <li>△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름다운 가게 - ‘나눌수록 커지는 즐거운 장터’</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www.samnangseong.org)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제3회 고려산진달래축제

개최횟수	제3회
일시/기간/주기	2005. 4. 23 ~ 4. 24/총2일간/매년
장 소	고려산 일원 (주 행사장 고인돌 광장)
주최/주관	주최/주관: 고려산진달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강화군, 강화문화원, 강화로닷컴
기획/운영주체	민간 중심형 축제
기획취지	°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와 낙조 등 자연경관을 대내외 홍보를 위한 민, 관, 군이 지역화합의 장으로 발전하고자 추진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6천4백천만원(군비: 2천5백만원/자부담: 3천9백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 무대행사 ° 강화용두레질노래 공연, 외포리 꽃창굿공연(무형문화재 공연) ° 길놀이 풍물(식전행사) ° 어린이부채춤, 요들송, 설장구, 승무북, 모듬북, 이벤트행(공연행사) ° 연예인 공연 ° 진달래꽃 시낭송회 △ 체험행사 ° 완초공예체험, 도자기체험(담기,지연), 자연염색, 승마, 에어바운트 (어린이놀이시설), 홍보관운영 △ 기타 행사 ° 강화도 시골 장터 운영, 진달래 군락지 조망 및 산책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a href="http://www.ganghwaro.com/goryeosan">www.ganghwaro.com/goryeosan</a> )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제3회 강화도선원사논두렁연꽃축제

개최횟수	제3회
일시/기간/주기	2005. 7. 30 ~ 8. 4/총6일간/매년
장 소	강화도 선원사 일원 (특설무대)
주최/주관	주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사 주관: 선원사논두렁연꽃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기획/운영주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혼합형
기획취지	° 선원사 연꽃을 소재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종교문화를 통한 지역화합의 문화축제로 강화를 알리고자 함.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1천만원(시비: 5백만원/구비: 5백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성화축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정보관, 연홍보관, 연꽃 시화전관, 연꽃공예관, 연꽃관련업체관</li> </ul> </li> <li>△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행사(입제식/회향식), 면민의 행사(장기노래자랑, 리별대향게임), 개막축하공연, 전통민속공연(풍물패 공연, 민요한마당), 전통불교공연(팔만대장경 이송, 법요식, 영산재), 연꽃 무용, 시 낭송회</li> </ul> </li> <li>△ 체험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꽃잎 천연 염색, 연꽃 Photo Zone, 용두레 체험, 완초/화문석체험, 짚공예체험, 다례시범 및 체험, 페이스페인팅</li> </ul> </li> <li>△ 놀이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윷놀이 대항전, 사생대회(그림 및 글짓기), 말 타보기, 점핑 클레이, 연등 만들기, 종이로 동물 만들기</li> </ul> </li> <li>△ 먹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냉면, 연엽차 시음회, 연쌈밥/연자반/연자죽, 연아이스크림/연쉐이크, 연엽주 제조 및 시음회, 강화도 특산품 홍보관</li> </ul> </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없음.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기타 특기사항	° 축제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로, 축제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국 2인, 운영인원 2인, 진행위원 5인 구성

## 제2회 강화새우젓축제

개최횟수/주제	제2회 - 도시인의 식생활 건강, 맛을 찾아서
일시/기간/주기	2005. 10. 7 ~ 10. 10/총4일간/매년
장 소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외포항)일원
주최/주관	주최: 경인북부수협/주관: 강화도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
기획/운영주체	민간 중심형
기획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도 새우젓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li> <li>◦ 새우젓축제를 추진 어업인 소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화도 새우젓 이미지 제고</li> </ul>
조례제정여부	관련 조례 없음.
예 산	5천만원(시비: 2천만원/군비: 2천만원/자부담: 1천만원)
축제범주	지역특산물축제
프로그램	<p>△ 주요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바각설이 공연, 즉석게임(맥주빨리마시기, 홀라후프돌리기, 새우젓가요제예선, 축하공연, 모듬북공연, 불꽃놀이, 새우젓효사랑잔치, 사물놀이, 진도북, 경기민요공연, 개회식(군악대/학춤/사물놀이공연), 밴딩이회뜨기대회, 백합조개까기, 새우젓즉석경매, 관광객노래자랑, 불꽃놀이, 강화수산물전시/시식회, 각설이공연, 태권도시범대회, 강화갯벌잡기대회, 불우이웃김치담궈보내기, 새우젓가요제결선, 스포츠댄스, 가수초청공연, 새우젓홍보대사임명, 농악놀이, 품바각설이공연, 관광객즉석노래자랑, 폐막식</li> </ul> <p>△ 부대/상설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도새우젓스탬프, 캐릭터공모전, 새우젓디자인공모전, 거리장터운영, 이동우체국운영, 사진작품전시/인삼막걸리시음, 화문석관, 페이스페인팅, 디카사진, 거리화가, 선수어장견학, 낙조조망 및 촬영, 학생사생대회</li> </ul>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 <a href="http://www.jutgal.co.kr">www.jutgal.co.kr</a> )
평가시스템	자체 결과 보고

## **【부록 2】**

### **인천광역시 축제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

< 2000. 2.14 조례 제34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범시민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전 시민의 활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제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시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과 지역단위 시민단체,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경제, 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보조 및 감독) ①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원활한 축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0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00년도의 경우에는 축제개최일 5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매년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2004. 7. 31 조례 제8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개최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제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4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중 1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구의회의원 3인과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축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축제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축제위원회에는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의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축제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축제위원회는 축제 개최시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회의 또는 고문과 자문위원이 밝힌 의견에 대해서는 축제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기획단 운영 등) ①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기획단에 당해축제와 관계된 전문가(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



제11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축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기획단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축제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축제위원회는 축제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 뒤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축제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4. 7. 31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1997. 5.12 조례 제424호]

개정 1999. 1.11 조례 제508호

2001.11.14 조례 제661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3. 7. 2 조례 제726호

2004. 3.24 조례 제748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 규정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2. 법 제11조 규정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과 건축·환경·조형예술등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회의록의 비치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개정 1999. 1.11, 2001.11.14)

③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의견의 진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 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 제 4 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구청장이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미술장식품의 건축물과의 조화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예술성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별도 미술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한다.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제2호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제16조 삭 제(2003. 7. 2)

### 제 5 장 문화.예술 축제 지원(신설 2003. 7. 2)

제17조(구민축제 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구민축제(이하"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20조(축제위원회의 구성등) ①축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3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 3.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4.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

제25조(간사.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서기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개정 2004. 3.24)
- ③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대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26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등) ①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은 당연직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축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상임위원회) ①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은 겸임할 수 있다.
- 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축제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축제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제28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2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축제위원회는 축제종료후 사업정산보고서를 1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1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와 심의기준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 칙 (2003. 7. 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문개정 2001.11.19 조례 제349호

2003. 6. 9 조례 제394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칭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칭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칭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행정구역내의 건축물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구 관내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술장식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칭한다)소속하에 인천광역시연수구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2.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3. 기타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건축, 환경,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간사와 서기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중 연면적(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집회장(단, 복합용도로 10,000㎡이상 건축물 포함)

제1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구청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의 규정에 의하여 회화·조각·공예·조형예술물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예술 작품성을 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①구청장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건축주로부터 제1항의 미술장식품이 설치 완료 신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장식품의 가격 등 설치 적정 여부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설치 완료된 미술장식품의 심의 결과 심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재시공 또는 추가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주는 구청장이 미술장식 설치 여부 확인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미술장식품의 관리) ①구청장은 관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그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미술장식품에는 작품의 명, 개요, 규격 등의 내용 이외에 상업용 포스터, 스티커, 장애물 등을 부착,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 제5항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삭제

#### 제4장 문화·예술 축제 지원

제18조(구민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 관내의 문화유산을 전통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수구민축제(이하 축제 라 칭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축제대상사업)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 발전과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축제
2. 지역 특성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
3. 기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발돋움 위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제2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 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중 연장자를 수석부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문화담당국장, 의회의원, 연수구 문화원장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문화담당과장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위원장은 수석 부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3.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등) ①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 운영의 대표성과 역사적 고증 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기획단 운영등)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 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칭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축제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 중 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며,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9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기획단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축제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계획서 제출등) ①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 협조등)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인력 및 행사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축제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11.19 조례 제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1조 제1항의 2002년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2002년 6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2003. 6. 9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FAC 연구보고서 2005-03

---

## 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발행인 최 원 식

발행일 2005년 12월

발행처 (재)인천문화재단

(405-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한국토지공사 B/D 3층

전화 032-455-7100 팩스 032-455-7190

홈페이지 [www.ifac.or.kr](http://www.ifac.or.kr)

인쇄 어진터

---

ISBN 89-957716-2-3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인천문화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